

우리나라 外資導入의 現況과 影響 및 改善策

全 應 烈 *

- | | |
|----------------|--------------------|
| I. 序 論 | 5. 技術導入 |
| II. 外資導入政策의 變遷 | 6. 元利金償還實績 |
| III. 外資導入의 現況 | IV. 經濟開發計劃과 外資投資基準 |
| 1. 無償援助 | V. 外資導入이 經濟에 미친 影響 |
| 2. 財政借款 | VI. 外資導入의 改善策 |
| 3. 民間商業借款 | VII. 結 論 |
| 4. 直接投資 | |

I. 序 論

우리나라는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美國援助의 減少와 經濟開發計劃의 推進등에 의하여 外資需要가 急激히 增加함에 따라 無償援助體制에서 有償外資導入體制로 轉換하였다.

有償外資導入이 經濟的, 政治的인 不安定과 制度的, 行政的인 諸條件이 未備인 初期段階에서는 AID의 財政借款인 公共借款에만 依存하였으나 第1次5個年計劃이 끝나고 第2次5個年計劃이 進行되면서 外資에 대한 諸般優待措置, 高度의 經濟成長 및 政府의 積極的인 經濟外交 등 諸般與件이 好轉됨에 따라 民間借款導入段階에 到達하였다. 第1, 2次5個年計劃期間中 外資의 量的確保에서 어느程度 成果를 거두게 되자 政府는 한걸음 더 나아가 有利한 條件의 外資導入과 多邊的인 借款先의 確保, 外資導入行政 및 事後管理強化, 元利金償還問題가 隨伴되지 않는 直接投資의 優待의 誘致등 外資導入의 質的改善에 따라 直接投資誘致段階를 指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外資導入에 대한 當面課題는 國內資本吸收能力과 元利金償還能力에 關聯한 適正規模策定 및 導入된 外資의 效率的인 管理問題, 그리고 借款事業의 擴大에 따르는 國內經濟에 대한 壓迫을 調整하는 問題등이다.

* 經濟學科 教授

Ⅱ. 外資導入政策의 變遷

後進國들이 全部 外資導入을 獎勵하기 위해서 外資導入促進法을 制定하는 同時에 投資保障 協定과 租稅條約을 締結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先進國의 資本家가 海外投資를 할 때 에는 投資의 收益性과 安定性, 現在 및 將來의 市場展望 또는 原料의 供給, 既存市場維持의 必要性, 後進國政府의 態度 및 法令, 徵發, 또는 國有化의 위험, 關稅 및 貿易障礙, 租稅등의 諸要因을 考慮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外資導入을 促進하기 위해서 1960年 1月 1日에 처음으로 外資導入促進法을 制定하였다. 同法은 外國投資家의 投資를 保障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資本의 回收, 果實의 送金, 果實의 再投資, 借萬元利金の 送金등을 許容하고, 여러가지 租稅特典을 規定하고 있다.

租稅特典의 主要內容은 ① 直接投資의 경우 登錄企業은 業務開始日로부터 8年間 企業의 所有에 대한 課稅에 있어서 減免의 惠擇을 받는다. 또한 同法은 外國資本으로 輸入하는 物品에 대해서는 關稅 및 物品稅를 免除한다. ② 借款의 경우 外國借款으로 부터 생기는 利子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에 있어서는 借款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5年間은 全額 免除하고 다음 3年間은 算出稅額의 2/1을 輕減한다. ③ 技術援助契約의 경우 技術援助契約에 의하여 技術의 代價로서 支給하는 使用料에 대한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에 있어서는 直接投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技術援助契約을 締結한 날로부터 5年間은 全額免除가 되며 다음 2年間은 算出稅額의 3/2, 다음 1年間은 稅額의 3/1을 輕減한다.

以上과 같이 租稅特典을 規定한 外資導入促進法施行令이 1960年 3月 24日에 公布되었으며 同年 8月 18日에 그 施行規則이 制定됨으로써 法制度面에서는 外資導入態勢를 一旦 갖추었다. 그러나 이法은 制約이 심하여 實績이 別로 없었기 때문에 1961年 8月 7日에 同法을 처음으로 改正하였다. 그 改正內容을 보면 ① 投資對象事業의 範圍를 大幅 넓혀 當初에 鑛工業 또는 農林漁業에 局限되었던 것을 電力, 觀光 및 用役을 追加함으로써 事業範圍를 大幅 擴張하였다. ② 同法이 適用되는 地域範圍를 大幅 開放하였다. 當初에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며 友好通商航海條約을 締結하고 있는 國家」라고 規定되었던 것을 新投資의 登錄時에 大韓民國과 「正常的인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國家」로 緩和함으로써 美國一邊倒에서 西獨日本, 伊太利, 佛蘭西등 다른 自由友邦國家의 民間資本을 導入할 수 있는 길이 트이었다.

外資導入基本方針은 1961年 12月 15日 閣議에서 議決된 「外資導入運用에 관한 基本方針에 明示되어 있는데 善意의 外國資本을 그 形態와 額數에 不拘하고 이것을 許容함으로써 投資를 極大化하고 支給保證을 實施하며 民間外資導入事業에 대해서는 財政資金이나 其他可用資金으

로 融資를 하고 補完措置로서 必要한 國際條約을 締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62年 6月에는 「非計劃事業을 위한 外資導入促進方案」을 公布하였는데, 同案은 5個年 計劃에 策定되어 있지 않은 事業이라 할지라도 民間企業의 創意에 의하여 自發적으로 推進하는 外資導入事業에 대해서는 모든 協調와 支援을 아끼지 않은 것임을 밝히었다.

그後 1963年 2月에 政府는 着手金の 支給이 없거나 同支給을 保有外換에 기대치 않고 政府의 支給保證을 要求하지 않으며 또 財政融資를 기대하지 않는 事業에 限하여 그 事業內容에 따라 外資導入을 許可한다고 發表하였다. 그리고 1963年 4月에는 「長期決濟方式」에 의한 資本財導入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改正公布하여 西獨, 日本 등으로 부터의 借款導入의 길을 事實上 開放하였으나 곧 이어 「原則적으로 直接投資와 借款을 우선 取扱하고 長期決濟方式에 의한 資本財의 導入을 抑制한다」는 發表를 하였다.

1965年 2月 23日에 「韓美投資共同管理委員會」를 設置하였다. 同委員會는 民間商業借款에 의한 外資導入審査에 대한 共同協議를 하기 위하여 新設된 것이고 특히 民間商業借款導入에 대한 基準을 세워 同借款事業의 緊要度와 借款條件등을 共同으로 審議하는 것이다.

政府의 外資導入方針은 1967年 12月 1日附로 實施하게 된 「外資導入合理化를 위한 綜合施策에 明示되어 있으며 그 重要內容은 ① 年度別外資導入 規模는 外資導入에 따른 元利金償還額이 當該年度 外資收入의 9%를 超過하지 않도록 하고 ② 民間商業借款은 여러가지 基準에 의하여 規制하며 ③ 앞으로 外資導入은 國際金融機關에 의한 轉貸用借款 外國銀行團에 의한 限度借款 및 外債發行등에 의한 包括적인 外資調達方式으로 漸次 轉換시킨다는 것이다. 즉, 外資의 質的嚴選을 目的으로 從來의 供給者借款(supplier's credit)中心의 外資誘致方式을 金融信用(financial credit or buyer's credit) 및 先進資本市場에서의 外資表示債券發行등을 통한 外資調達方式으로 轉換코자 하는 것이다.

1968年에 實施된 主要外資導入 施策은 1967年 12月부터 實施된 外資導入合理化 綜合施策의 基調위에 外資導入事業部門別 投資優先順位の 再調整 및 第2次5個年 計劃期間中 主要外資導入計劃事業의 強力한 推進, 그리고 外資導入을 위한 經濟外交의 強化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外資導入合理化 綜合施策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1967年 12月에 制定된 施策을 1968年 부터 本格的으로 實施하여 民間商業借款의 質的改善에 重點을 두고 있다. 즉, 外資導入業體의 自己資金 充實度を 強化시켜 圓貨調達能力이 없는 不實業體의 民間商業借款을 抑制시켰으며 그 結果 內資調達用 現金借款은 거의 없었다. 한편, 同施策이 外國人直接投資의 積極적인 誘致策에 대해서는 從來 行政力에 의해 嚴格히 規制해오던 日本系 直接投資에 대하여 그 條件을 緩和하여 輸出産業은 勿論 內需産業에 대한 單獨 및 合作投資도 許用하였으며, 外國人 投資企業體의 本支店間에 輸出入하는 施設材 및 原資材의 通關節次를 簡素化하고 貿易法

상의 特例措置를 適用키로 하였다.

둘째, 投資優先順位の 再調整에 대하여 政府는 從來 外資導入을 工業部門爲主의 投資優先政策을 多少 調整하여 앞으로 農漁村開發部門에도 相當한 比重을 두기로 하고 第2次5個年計劃期間中 總2億5千萬弗의 外資를 農漁村開發에 投入할 計劃을 세웠다. 이것을 위한 投資財源調達은 ① 對日·請求權資金 1億弗 ② 對日 民間商業借款 60百萬弗 ③ 亞細亞開發銀行借款 12百萬弗 ④ AID 및 IDA 借款 10百萬弗 ⑤ 外國人直接投資 15百萬弗 그리고 나머지는 開發金融機關을 통한 外貨轉貸등으로 充當할 計劃을 하였다.

셋째, 主要外資導入計劃事業의 推進에 대해서 政府는 第2次5個年計劃期間中 主要外資導入計劃事業으로 策定한 綜合製鐵, 石油 化學工業 및 高速道路 建設計劃등을 強力히 推進하기로 되어 있다.

政府는 올해부터 經濟體質改善策으로서 原資材의 國產化代替를 내세우고 새로운 外資導入의 量的規制策의 하나로 償還期間 10年未滿의 民間商業借款 導入을 앞으로 積極抑制할 方針을 세우고 있다. 後者의 경우 政府는 10年以下의 短期民間商業借款에 대해서 年度別로 限도를 두기로 하고 今年度を 295百萬弗로 두기로 하는것, 즉 短期民間商業借款에 대한 年度別 限度制를 實施하게 되었다.

開發初期에 있어서 外資導入의 量的置重은 여러가지 副作用을 빚어 내었고 이중에도 深刻한 現實問題로 指摘되고 있는 것이 元利金償還到來分에 대한 償還不能業體, 즉 代拂業體가 續出하는 것이다. 政府에서 發表한 限度制는 外資의 需要豫測에 立脚한 適正規模의 外資受容面보다 오히려 對外支給能力面에 치우친 것이다. 政府의 同 限度制 實施措置가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向한 開發意慾을 크게 沮喪시키지 않는가 憂慮된다.

以上の 民間商業借款의 副作用때문에 外資導入은 借款에서 直接 및 合作投資에로의 轉換을 積極推進하고 있다. 直接 및 合作投資는 元利金償還에 壓力을 주지 않을 뿐더러 先進國의 經營能力, 技術 및 國際市場등을 利用할 수 있다.

將次 外資導入에 있어서 既存外資導入業體에 대해서는 國際競爭單位에 到達하도록 補完的인 集中投資를 하고 新規外資導入事業에 대해서는 業體의 產業均衡發展에 대한 寄與度, 潜在市場을 勘案한 國際規模化 可能性 및 國際競爭能力和 其他 技術의發展展望 事業主體의 財力 및 經營能力등을 勘案하여 投資優先順位를 決定하여야 한다. 外資導入을 單純히 元利金償還負擔만 配慮해서 償還能力 및 年間負擔을 勘案하여 外換事情에 대한 壓迫을 長期에 걸쳐 分散해 보려는 限度制規制보다 投資의 必要性和 採算性 및 產業均衡化面에서 참으로 必要하고 外資獲得이 可能的한 部門은 굳이 制限할 必要性은 없다.

끝으로 政府는 第2次5個年計劃에 있어서 所要外資調達의 最大 財源確保와 外資導入多邊

化를 위해 IECOK(對韓 國際經濟協議體)에 큰 期待를 걸고있다. 同 IECOK 는 1966年 12月 「파리」에서 創設以來 해마다 年次總會를 갖고 11個先進國과 4個 國際機關이 한데 뭉쳐 韓國 經濟發展을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經濟를 評價分析하고 所要外資誘致를 協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8年 4月에 「와싱턴」에서 第2次總會에 提示했던 20件 667百萬弗의 事業가운데 그동안 借款契約된 것은 IBRD 借款인 錦江, 平澤地區의 全天候農業開發用 42百萬弗를 비롯, 서울火電 213號機, 馬山火電, 重裝備借款, 鐵道「레일」導入, 農漁村開發公社借款의 一部등 약 175百萬弗이다. 1969年 4月 17—18兩日間 「파리」에서 開催되는 第3次總會에 政府가 提示한 事業計劃을 보면 落後産業인 農業, 畜産, 中小企業을 비롯하여 隘路部門이 되고 있는 電力開發과 輸送力擴充에 重點을 두었다는 特色이 있다. 그밖에 製造業部門에서 中小企業을 除外한 事業計劃은 工作機械 工場을 包含시키고 있다. 第3次總會에 提示된 事業規模가 24件 51,672 萬弗에 達하지만 昨年度 第2次總會에서 未決된 채 넘어온 것을 除外하면 1,796千弗이다. 또한 昨年度의 繼續事業으로서는 綜合製鐵과 石油化學工業을 내세움으로써 先導的 戰略事業에 대한 「암모니아·센터」, 심각한 輸送難打開과 關聯된 「디젤」機關車導入 등을 繼續推進하고 있다.

Ⅲ. 外資導入의 現況

1. 無償援助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償援助는 1945年 9月 GARIOA 援助로 부터 始作하여 最近의 AID援助에 이르기 까지 解放以後 23年間に 總額 4,064,714千弗에 달하고 있다. 그 無償援助의 內容을 보면 1945년부터 1949年 까지의 期間은 GARIOA 의 援助를 받았고, 今後 1949년부터 1953年 까지의 期間은 FCA 와 SEC 의 援助를 받았다. CRIK 援助는 1950年 부터 1956年 까지의 期間에, UNKRA 援助는 1951년부터 1960年까지의 期間에 주로 받았다. 그리고 AID援助는 1953年 부터 美公法 480號에 依據한 剩餘農産物(LP480)導入은 1956년부터 各各 始作하여 오늘날 까지 繼續하고 있다.

<表 1>

無償援助受入額 (1967年 12月末現在)

(單位: 千弗)

| 援助機關 | 援助額 | 援助期間 |
|-----------------------|-----------------|-----------|
| U · S · A | GARIOA 502,097 | 1945—1949 |
| | ECA&SEC 109,164 | 1949—1953 |
| | AID 2,304,482 | 1953—1967 |
| | PL480 551,509 | 1956—1967 |
| | CRIK 457,378 | 1950—1956 |

UNKRA 122, 084 1951—1960

計 4, 064, 714

資料 : 韓國銀行, 1968年 經濟統計年報 p360

註 : PL480 은 導入剩餘農產物販賣代金의 一部를 美國側이 使用한 것을 包含함.

表 2 와 같이 우리나라 經濟의 援助依存度는 1953~1967年期間 平均 10.2%이었으며 援助規模가 가장 큰 1957年에 있어서는 382, 893千弗이고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는 19.8%이고 援助規模가 가장 적은 1967年에 있어서는 不過 96, 933千弗이고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는 2.3%이다.

<表 2>

國民總生産 및 外國援助의 規模

| 年 度 | 國民總生産(A) (百萬弗) | 援 助 額(B) (千 弗) | A/B% |
|------|-------------------|-------------------|-------|
| 1945 | — | 4, 934 | — |
| 1946 | — | 49, 496 | — |
| 1947 | — | 175, 371 | — |
| 1948 | — | 179, 593 | — |
| 1949 | — | 116, 509 | — |
| 1950 | — | 58, 706 | — |
| 1951 | — | 106, 542 | — |
| 1952 | — | 161, 327 | — |
| 1953 | 1, 540. 2 | 194, 170 | 12. 6 |
| 1954 | 1, 638. 8 | 153, 925 | 9. 4 |
| 1955 | 1, 735. 3 | 236, 707 | 13. 6 |
| 1956 | 1, 814. 1 | 326, 706 | 18. 0 |
| 1957 | 1, 934. 1 | 382, 893 | 19. 8 |
| 1958 | 2, 174. 4 | 321, 272 | 14. 8 |
| 1959 | 2, 275. 5 | 222, 204 | 9. 8 |
| 1960 | 2, 331. 2 | 245, 393 | 15. 3 |
| 1961 | 2, 410. 6 | 199, 245 | 8. 2 |
| 1962 | 2, 510. 6 | 232, 310 | 9. 2 |
| 1963 | 2, 729. 8 | 216, 446 | 7. 9 |
| 1964 | 2, 962. 0 | 149, 331 | 5. 0 |
| 1965 | 3, 246. 3 | 131, 441 | 4. 0 |
| 1966 | 3, 804. 4 | 103, 261 | 2. 7 |
| 1967 | 4, 268. 0 | 96, 933 | 2. 3 |

資料 : 韓國銀行, 1968年 經濟統計年報 p360

“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表 3 과 같이 1954—1967年間의 GNP 成長率은 年平均 6.4%인데 이러한 經濟成長率을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同 期間中 年平均 國內總投資率은 GNP 의 14.3%에 該當한다. 이投資率中

年平均 國內總貯蓄率은 5.8%이고 나머지 8.4%는 援助 또는 借款인 海外貯蓄率이다. 그러나 1954—1961年間の GNP 成長率은 年平均 4.8%이고 國內總投資率은 年平均 12%인데 國內總貯蓄率은 年平均 3.9%이고 나머지 8.1%는 無償援助인 海外貯蓄率로 充當한 것이다.

<表 3> 經濟成長과 投資 및 貯蓄 (單位%)

| 年 度 | 1954 | 1955 | 1956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平均 |
|---------|------|------|------|------|------|------|------|------|------|------|------|------|------|------|------|
| GNP 成長率 | 6.0 | 6.1 | 1.2 | 8.8 | 5.5 | 4.4 | 2.3 | 4.2 | 3.5 | 9.1 | 8.3 | 7.4 | 13.4 | 8.9 | 6.4 |
| 國內總投資率 | 11.6 | 11.9 | 9.5 | 15.3 | 12.9 | 10.7 | 10.9 | 13.1 | 13.0 | 18.4 | 14.5 | 14.7 | 21.6 | 21.8 | 14.3 |
| 國內總貯蓄率 | 6.4 | 4.9 | 1.4 | 5.5 | 5.0 | 3.9 | 2.4 | 4.6 | 2.2 | 7.6 | 7.5 | 8.2 | 13.1 | 11.2 | 5.8 |
| 海外貯蓄率 | 5.3 | 7.0 | 10.8 | 9.8 | 7.9 | 6.8 | 8.5 | 8.5 | 10.8 | 10.7 | 7.1 | 6.5 | 8.5 | 9.0 | 8.4 |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 1967年 國民總生產實績推計

以上과 같이 巨額의 無償援助를 받았으나 1950年代 中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經濟가 戰時體制에 있었으므로 그 無償援助를 經濟發展에 使用하지 못하고 國防費에 轉入했고 혹은 그 援助額을 經濟發展에 使用할 때는 消費財 또는 原資材導入에 充當하여 土着産業을 破壞시켰다. 그리고 受援態勢가 갖추어지지 않아 援助를 處理한 官僚 및 企業家들이 無能力하고 腐敗하여 援助를 效率的으로 使用하지 못하였다.

2. 借 款

借款은 1959年 1月 20日 東洋세멘트工場의 擴張을 위한 2,139.3千弗의 DLF 借款을 爲始하여 1959년에는 4件에 12,345千弗, 1960년에는 1件으로 5,000千弗, 1961년에는 1件 3,130千弗로서 5.16革命 以前에는 總 6件에 2,476千弗이 確定된 데 不過하였다. 그러던 것이 1962年부터 第 1次 5個年計劃이 實施되면서 借款導入이 急激히 增加되었다.

表 4와 같이 1962—1966年の 年平均 GNP 成長率은 8.3%인데, 이 成長率을 기록하기 위해서 年平均 國內總投資率은 16.4%이고 이中 年平均 國內總貯蓄率은 7.7%인데 대하여 年平均 海外貯蓄率은 8.7%이니 높은 比率의 外資가 導入되었다. 그런데 1961年 以前에는 借款은 無視할 수 없을 만큼 적었고 1962年 以後에 차츰 커져가기는 하였지만 1965年까지는 아직 無償의 財政援助의 比重이 借款보다 컸었다.

<表 4> 1962—1966年の 經濟成長과 投資 및 貯蓄 (單位 : %)

| 年 度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平均 |
|---------|------|------|------|------|------|------|
| GNP 成長率 | 3.5 | 9.1 | 8.3 | 7.4 | 13.4 | 8.3 |
| 國內總投資率 | 13.0 | 18.4 | 14.5 | 14.7 | 21.6 | 16.4 |
| 國內總貯蓄率 | 2.2 | 7.6 | 7.5 | 8.2 | 13.1 | 7.7 |
| 海外貯蓄率 | 10.8 | 10.7 | 7.1 | 6.5 | 8.5 | 8.7 |

資料 : 表 3에 依據해서 作成함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借款導入確定의 總額은 1969年 1月 31日 現在로 總 382件 1,513,089千弗인데 財政借款은 69件 493,089千弗이고 이것은 全體의 32.5%에 該當되고 民間商業借款은 200件 928,755千弗이고 이것은 全體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民間商業借款 200件 928,755千弗中 政府支給保證은 54件 340,979千弗, 市中銀行支給保證事業 125件 505,646千弗, 支給保證不要事業이 21件 82,130千弗이다. 外國人 直接投資事業은 113件 91,245千弗인데 이것은 全體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表 5> 外資導入總括(1969年 1月 31日現在) (單位:千弗)

| 確定된 事業 | 件 數 | 金 額 |
|------------|-----|-----------|
| 1. 財政借款 | 69 | 493,089 |
| 2. 商業借款 | 200 | 928,755 |
| 政府支給保證事業 | 54 | 340,979 |
| 市中銀行支給保證事業 | 125 | 505,646 |
| 支給保證不要事業 | 21 | 82,130 |
| 3. 直接投資事業 | 113 | 91,245 |
| 計 | 382 | 1,513,089 |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 推進現況

註: 確定된 事業中 財政借款은 協定締結, 民間商業借款은 L/G 또는 E/L 發給, 直接投資 및 技術導入은 認可를 基準한 것임.

表 6 과 같이 借款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外資導入 確定額을 보면 1962年을 基準으로 하여 1963年에 105.4%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64年에는 153.5%, 1965年에는 270.4%, 1966年에는 412.9%로 第 1次 5 個年計劃期間에 4 倍로 增加했고 1967年에 388.2%로 若干減少하였던 것이 1968年에 856%로 約 8.5倍로 急增하였다.

<表 6> 年次別 外資導入 確定額(1969年 1月 31日現在) (單位:千弗)

| 年 度 | 總 額 | 構成比 | 財政借款 | 構成比 | 民間商業借款 | 構成比 | 直接投資 | 構成比 |
|------|---------|-------|---------|-------|---------|------|--------|------|
| 1959 | 12,346 | 100.0 | 12,346 | 100.0 | — | — | — | — |
| 1960 | 5,000 | 100.0 | 5,000 | 100.0 | — | — | — | — |
| 1961 | 3,130 | 100.0 | 3,130 | 100.0 | — | — | — | — |
| 1962 | 65,456 | 100.0 | 52,283 | 94.3 | 1,803 | 3.2 | 1,370 | 2.5 |
| 1963 | 69,011 | 105.4 | 9,500 | 13.7 | 54,069 | 88.4 | 5,442 | 7.9 |
| 1964 | 100,488 | 157.5 | 37,891 | 37.7 | 61,840 | 61.5 | 757 | 0.8 |
| 1965 | 176,978 | 270.4 | 76,300 | 43.1 | 78,154 | 44.2 | 22,524 | 12.8 |
| 1966 | 270,329 | 412.9 | 152,881 | 56.5 | 104,408 | 38.6 | 13,040 | 4.9 |
| 1967 | 254,115 | 388.2 | 79,292 | 31.2 | 151,692 | 59.7 | 23,131 | 9.1 |
| 1968 | 560,350 | 856.0 | 61,885 | 11.0 | 467,286 | 83.3 | 31,179 | 5.7 |
| 1969 | 15,675 | — | — | — | 15,629 | 99.0 | 46 | 1.0 |

合計 1,513,089 25.9 493,089 32.5 928,755 61.4 91,245 6.1

資料 : {經濟企劃院, 綜合外資導入 推進現況, 1968. 8. 1
{經濟企劃院, 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 推進現況 1969. 1. 31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借款確定의 規模가 이처럼 擴大됨에 따라서 借款에 의한 物資導入實績額도 急速히 增加되었다. 1962년까지는 7,349千弗에 不過하였던 것이 1963년에는 거의 10倍로 늘어 71,692千弗, 1964년에는 24,049千弗로 前年보다 減少되었고 1965년에는 48,057千弗로서 前年보다는 增大되었으나 1963年보다는 적다. 1966년에는 197,322千弗로 2億弗線에 달했고 1967년에는 234,770千弗로 2億弗線을 突破하였다가 1968년에는 358,141千弗로 3億弗線을 훨씬 超過했고, 1969年 1月 31日 現在로 30,181千弗로 總計 975,561千弗로서 10億弗線에 육박하고 있다.

<表 7> 外資導入에 의한 物資導入實績(1969年 1月 31日現在) (單位:千弗)

|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1969 | 合計 |
|------------|-------|--------|--------|--------|---------|---------|---------|--------|---------|
| 1. 財政借款 | 7,349 | 42,613 | 11,588 | 5,653 | 72,831 | 105,214 | 73,164 | 1,541 | 319,953 |
| 2. 民間商業借款 | — | 23,627 | 11,904 | 36,107 | 110,156 | 123,875 | 267,341 | 28,640 | 601,650 |
| 政府支給保證事業 | — | 21,957 | 11,431 | 34,288 | 101,754 | 66,349 | 65,594 | 3,760 | 305,133 |
| 市中銀行支給保證事業 | — | — | — | — | 5,187 | 38,963 | 161,599 | 18,668 | 224,417 |
| 支給保證不要事業 | — | 1,670 | 473 | 1,819 | 3,215 | 18,563 | 40,148 | 6,212 | 72,100 |
| 3. 直接投資 | — | 5,452 | 557 | 6,297 | 14,335 | 9,681 | 17,636 | — | 53,958 |
| 計 | 7,349 | 71,692 | 24,049 | 48,057 | 197,322 | 238,770 | 358,141 | 30,181 | 597,561 |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8年

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 推進現況 1969. 1. 31 現在

表 8과 같이 海外貯蓄供給의 變化를 보면 1962年の 海外貯蓄供給額은 239,699千弗이던 것이 1968年の 그것은 473,441千弗로서 97.6%가 增加했고, 無償援助는 1962년에 232,310千弗이던 것이 1968년에는 115,300千弗로서 50.4%減少되었고, 反對로 借款은 1962년에 7,349千弗이던 것이 1968년에는 358,141千弗로서 4773.3% 增加하였다.

<表 8> 海外貯蓄供給의 變化 (單位:千弗)

| 年 度 | 總 額(A) | 構 成 比 | 無償援助(B) | 構 成 比 | 借款 및 直接投資 | 構 成 比 | B/A% | C/A% |
|------|---------|-------|---------|-------|-----------|---------|------|------|
| 1962 | 239,699 | 100.0 | 232,310 | 100.0 | 7,349 | 100.0 | 1.0 | 32.5 |
| 1963 | 288,138 | 120.2 | 216,446 | 93.6 | 71,692 | 975.5 | 1.3 | 4.0 |
| 1964 | 173,380 | 72.3 | 149,831 | 64.2 | 24,049 | 327.2 | 1.1 | 8.8 |
| 1965 | 179,498 | 74.9 | 131,441 | 56.5 | 48,057 | 655.2 | 1.3 | 3.7 |
| 1966 | 300,583 | 125.4 | 103,261 | 44.0 | 197,322 | 2,685.0 | 2.9 | 1.5 |
| 1967 | 335,703 | 140.1 | 96,933 | 41.7 | 238,770 | 3,249.0 | 3.5 | 1.4 |
| 1968 | 473,441 | 197.6 | 115,300 | 49.6 | 358,141 | 4,873.3 | 4.0 | 1.3 |

資料: 韓國銀行, 1968年 年次報告書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8

産業別로 外資導入을 보면 表 9와 같이 第 1次産業에는 37件 76,658千弗로서 全體의 5%를 차지하고 있고 其中 農業에 2,354千弗, 漁業에 74,304千弗에 投資하고 있다. 第 2次産業에 227件 701,463千弗로서 全體의 46.3%를 차지하고 있고 其中 鑛業에 3件 15,880千弗, 工業에 224件 685,583千弗로서 全體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第 3次産業은 119,734,969千弗로서 全體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産業別外資導入의 特徵은 大部分의 外資가 輸入代替的인 性格을 가진 産業에 投入되고 積極的인 外貨稼得目的을 위하여 投資된 比率이 적다. 第 1次産業部門中 漁業에 대한 投資는 海外市場을 相對로 하는 遠洋漁業用 漁船의 導入이므로 外貨稼得效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食糧自給이 요원한 韓國經濟의 現實에 비추어 農林業에의 投資는 外貨稼得效果는 零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第 2次産業部門에 있어서 鑛業은 內需用 無煙炭鑛開發을 위한 것이므로 外貨稼得效果는 작고 建設業은 전혀 없으며 製造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水泥工場, 精油工場, 肥料工場 등 重要한 輸入代替産業은 外貨稼得效果는 없고 外貨節約效果만 있는 것이고, 그밖의 製紙, 綿紡織, 化學纖維, 電氣機器, 板 유리工業등도 積極的인 輸出産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처럼 借款에 의한 工業化가 內需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데 적지 않은 問題가 있다.

<表 9> 確定된 事業의 主要業種別 構成(1969年 1月 31日現在) (單位: 千弗)

| 産業別 | 件數 | 金額 | 構成比(%) |
|-------|-----|-----------|--------|
| 第1次産業 | 37 | 76,658 | 5 |
| 農 業 | 11 | 2,354 | |
| 漁 業 | 26 | 74,304 | |
| 第2次産業 | 227 | 701,463 | 45.3 |
| 鑛 業 | 3 | 15,880 | |
| 工 業 | 224 | 685,583 | |
| 第3次産業 | 119 | 734,967 | 48.7 |
| 電 力 | 30 | 277,211 | |
| 運 輸 | 21 | 229,322 | |
| 通 信 | 15 | 48,661 | |
| 其 他 | 53 | 179,773 | |
| 計 | 383 | 1,513,088 | 100.0 |

資料: 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 綜合外資 導入 推進 現況 1969. 1. 31 現在

表10과 같이 外資導入事業의 進陟狀況은 1968年 12月末 現在로 190件 681.0百萬弗로서 45.2%에 達하고 있다. 1961—1963年期間에 11件 35.8百萬弗로서 2.4%이고, 1964年 12件 66.2百萬弗로서 4.4%이고, 1965年 11件 13.3百萬弗로서 0.9%이고, 1966年 22件 50.6百萬弗로서 3.3%, 1967年에 62件 286.3百萬弗로서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68年에는 72件으로서

15.2%를 차지하고 있다. 1969年中 完工豫定事業은 128件으로서 502.5百萬弗로서 33.3%가 될 豫定이다. 1969년에는 量的인面에서 件數上으로도 資金規模上으로도 最大規模일 것이다. 다만 質的인面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政府의 巨大한 計劃事業인 綜合製鐵, 石油化學, 機械工業, 原子發電등이 모두 70年以後로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今年度에도 4950萬弗規模인 第2精油(湖南精油)를 비롯하여 「아시아」自動車工場, 星信化學의 「세멘트」工場등의 大規模工場の 竣工을 보게 되었지만, 보다 次元높은 基幹工場の 竣工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고 件數面에서 財政借款이 21件, 民間商業借款이 75件, 外國人直接投資事業이 48件, 中小企業育成借款이 3件으로 區分되어 있으나 同一事業이면서도 借款과 合作으로 나누어 있는 경우도 있어 實質上 事業件數는 147件보다 10件内外가 적은 셈이다.

財政借款 21件中에는 韓國機械의 施設擴張事業을 除外하고는 製造工場建設이 전혀 없고,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등 6個都市의 上水道事業이 나란히 年內 竣工을 보게 되는 特色을 지니고 있다. 또한 民間商業借款 75件中에서도 44件이 製造業이고 나머지는 船舶導入, 電氣, 通信, 鐵道, 重裝備導入등의 事業이다. 製造業도 新規建設보다 8件의 綿紡織借款에서 볼 수 있듯이 大部分이 施設追加事業이고 그밖에 梳毛紡「나일론」化學纖維糸의 施設追加, 또는 新規事業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中小企業借款 3件은 IDA, 西獨財政借款등을 財源으로 한 轉貸用借款事業등이다. 올해는 量的인面에서는 外資導入의 「피크」를 이루게 될것이지만 質的인面에서는 多少 허전함을 던져 주기도 한다.

1970年中 完工豫定事業 55件 324.6百萬弗로서 21.5%를 차지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1970年 까지 總 373件 1,508.1百萬弗이 完工될 豫定이다.

<表 10> 外資導入事業의 進陞狀況(1968年 12月末 現在) (單位:百萬弗)

| 年度別 | 財政借款 | | 民間商業借款 | | 直接投資 | | 件數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
| | 件數 | 金額 | 件數 | 金額 | 件數 | 金額 | | | | |
| I. 完工된 事業 | | | | | | | | | | |
| 1961-63 | 6 | 30.2 | 4 | 4.2 | 1 | 1.4 | 11 | 2.9 | 35.8 | 2.4 |
| 1964 | 2 | 23.1 | 8 | 38.1 | 2 | 5.0 | 12 | 3.2 | 66.2 | 4.4 |
| 1965 | 1 | 8.8 | 3 | 3.3 | 7 | 1.2 | 11 | 2.9 | 13.3 | 0.9 |
| 1966 | 1 | 11.0 | 15 | 38.6 | 6 | 1.0 | 22 | 5.9 | 50.6 | 3.3 |
| 1967 | 7 | 98.0 | 36 | 162.1 | 19 | 26.1 | 62 | 16.7 | 286.2 | 19.0 |
| 1968 | 13 | 69.0 | 44 | 146.6 | 15 | 13.3 | 72 | 19.3 | 228.9 | 15.2 |
| 小計 | 30 | 240.1 | 110 | 392.9 | 50 | 48.0 | 190 | 50.9 | 681.0 | 45.2 |
| II. 1969年中 完工豫定事業 | 24 | 100.1 | 73 | 376.8 | 31 | 25.7 | 128 | 34.3 | 502.5 | 33.3 |
| III. 1970年中 完工豫定事業 | 12 | 137.4 | 11 | 169.3 | 32 | 17.9 | 55 | 14.8 | 324.6 | 21.5 |
| 合計(I+II+III) | 66 | 477.6 | 194 | 939.0 | 113 | 91.6 | 373 | 100.0 | 1,508.1 | 100.0 |

資料: 韓國銀行, 1968年度 年次報告書

2. 財政借款

財政借款確定額은 1969年 1日 31日 現在 表11과 같이 70件 493,087,923弗이고, 物資導入實績額은 319,953千弗이다. 이中 第1次産業에 1件 926,740 \$ 인데 全體의 0.2%이고 이것은 農業에 投資한 것이다. 第2次産業에 17件 142,746,745弗인데 全體의 29.0%이고 鑛業에 2件 14,379,880弗, 工業에 15件 128,366,865弗이다. 工業中 化學纖維 3件 10,590,465弗, 肥料 2件 48,800,000, 窯業, 췌멘트, 유리에 3件 6,126,447弗, 化學工業에 1件 5,600,000弗, 機械에 1件 3,000,000弗, 其他 5件 51,249,953弗이다. 第3次産業에 52件 349,414,438弗인데 全體의 70.8%이고 이中 電力에 8件 94,488,669弗, 運輸 11件 96,041,695弗, 通信 11件 44,976,994弗, 上下水道 7件 17,915,000弗, 建設 6件 23,992,087弗, 其他 9件 71,999,993弗이다.

〈表 11〉

財政借款 (1969. 1. 31現在)

(單位: 弗)

| 產 業 別 | 件 數 | 金 額 | 構成比(%) |
|-------------|-----|-------------|--------|
| 第 1 次産業 | 1 | 926,740 | 0.2 |
| 農 業 | 1 | 926,740 | |
| 第 2 次産業 | 17 | 142,746,745 | 29.0 |
| 鑛 業 | 2 | 14,379,880 | |
| 工 業 | 15 | 128,366,865 | |
| 化學纖維 | 3 | 10,590,465 | |
| 肥 料 | 2 | 48,800,000 | |
| 窯業, 췌멘트, 유리 | 3 | 9,126,447 | |
| 化學工業 | 1 | 5,600,000 | |
| 機 械 | 1 | 3,000,000 | |
| 其 他 | 5 | 51,249,953 | |
| 第 3 次産業 | 52 | 349,414,438 | 70.8 |
| 電 力 | 8 | 94,488,669 | |
| 運 輸 | 11 | 96,041,695 | |
| 通 信 | 11 | 44,976,994 | |
| 上下水道 | 7 | 17,915,000 | |
| 建 設 | 6 | 23,992,087 | |
| 其 他 | 9 | 71,999,993 | |
| 計 | 70 | 493,087,923 | 100.0 |

資料: 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 推進現況 1969. 1. 31 現在

財政借款을 國別로 보면 表12와 같이 美國에서 借款確定額이 318.4百萬弗인데 導入實績이 212.7百萬弗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日本에서 그額이 85.6百萬弗이고 導入實績은 54.9百萬弗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고, 西獨에서 그額이 31.2百萬弗이고 導入實績은 28.0百萬弗로

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國際金融機構에서 그額이 40.3百萬弗이고 導入實績은 21.3百萬弗이다.

<表 12> 財政借款의 國別狀況(1968.12) (單位:百萬弗)

| 國 別 | 借款確定額 | 導入實績 |
|--------|-------|-------|
| 美 國 | 318.4 | 212.7 |
| 西 獨 | 31.2 | 28.0 |
| 日 本 | 85.6 | 54.9 |
| 英 國 | 1.2 | 1.2 |
| 카 나 다 | 0.9 | 0.4 |
| 國際金融機構 | 40.4 | 21.3 |
| 計 | 477.6 | 318.4 |

資料: 韓國銀行, 1968年度 年次報告書

다음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財政借款條件을 檢討하면 着手金없음이 68件 481,667,913弗로서 全體의 97.7%, 10%의 着手金이 2件 11,020,000弗로서 全體의 2.3%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据置期間에 있어서 2/1년이 1件 4,500,000弗로서 全體의 0.9%, 2년이 2件 8,150,465弗로서 全體의 1.7%, 3년이 5件 29,480,000弗로서 全體의 5.9% 3.5년이 1件 4,750,000弗로서 全體의 0.9%, 4년이 1件 3,500,000弗로서 全體의 0.8%, 5년이 3件 9,916,714弗로서 全體의 2%, 7년이 19件 86,486,120弗로서 全體의 17.5%, 10년이 34件 333,159,113弗로서 全體의 67.6%, 据置期間없음이 4件 12,745,511弗로서 全體의 2.6%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償還期間에 있어서 4년2개월 1件 2,139,600弗로서 全體의 0.4%, 7년이 1件 6,000,000弗로서 全體의 1.2%, 8년이 3件 11,650,465弗로서 全體의 2.3%, 8년2개월이 1件 1,114,631弗로서 0.2%, 9.5년이 1件 3,491,280弗로서 0.7%, 10년이 2件 5,666,714弗로서 全體의 1.1%, 11.5년이 1件 8,750,000弗로서 全體의 1.8%, 12년이 2件 10,550,000弗로서 全體의 2.1%, 13년이 18件 85,559,380弗로서 全體의 17.8%, 15년이 3件 13,750,000弗로서 全體의 2.8%, 16년이 1件 5,180,000弗로서 全體의 1%, 16.5년이 1件 4,750,000弗로서 全體의 0.9%, 23년이 1件 926,740弗로서 全體의 0.2%, 30年 32件 308,159,113弗로서 全體의 62.5%, 40년이 2件 25,000,000弗로서 全體의 5%를 各各 차지하고 있으나 그中 10年以上이 63件 468,281,947弗로서 全體의 95.2%를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年利率에 있어서 0.75%가 13件 113,139,160弗로서 全體의 22.9%, 1%가 21件 207,919,953弗로서 全體의 42.2%, 2%가 1件 15,000,000弗로서 全體의 3.1%, 3%가 5件 18,606,740弗로서 全體의 3.8%, 3.5%가 20件 90,165,291弗로서 全體의 18.2%, 4%가 2件 13,500,000弗로서 全體의 2.8%, 5.25%가 1件 2,139,600弗로서 全體의 0.5%, 5.75%가 1件 3,130,465弗로서 全體의 0.7%, 6%가 3件 15,520,000弗로서 全體의 3.1%, 引出時 國際金利를 通用하는 件

이 3件 12,966,714弗로서 全體의 2.6%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表·13〉 財政借款條件

| 着手 金% | 件 數 | 金 額 (弗) | 構 成% 比 | 据置 期間 (年) | 件 數 | 金 額 (弗) | 構 成% 比 | 償還 期間 (年) | 件 數 | 金 額 (弗) | 構 成% 比 | 年 利 率 (%) | 件 數 | 金 額 (弗) | 構 成% 比 |
|----------|--------|-------------|--------------|-----------------|--------|-------------|--------------|-----------------|--------|-------------|--------------|-----------------------------|--------|-------------|--------------|
| 0 | 68 | 481,667,923 | 97.7 | 1/2 | 1 | 4,500,000 | 0.9 | 4 1/6 | 1 | 2,139,600 | 0.4 | 0.75 | 13 | 113,139,160 | 23.0 |
| 10 | 2 | 11,020,000 | 2.3 | 2 | 2 | 8,150,465 | 1.7 | 7 | 1 | 6,000,000 | 1.2 | 1 | 21 | 207,919,953 | 42.2 |
| | | | | 3 | 3 | 529,480,000 | 5.9 | 8 | 3 | 11,650,465 | 2.3 | 2 | 1 | 15,000,000 | 3.1 |
| | | | | 3 1/2 | 1 | 4,750,000 | 0.9 | 8 1/6 | 1 | 1,114,631 | 0.2 | 3 | 5 | 18,606,740 | 3.8 |
| | | | | 4 | 1 | 3,500,000 | 0.8 | 9 1/2 | 1 | 3,491,280 | 0.7 | 3.5 | 20 | 90,165,291 | 18.2 |
| | | | | 5 | 3 | 9,916,714 | 2.0 | 10 | 2 | 5,666,714 | 1.1 | 4 | 2 | 13,500,000 | 2.8 |
| | | | | 7 | 19 | 86,486,120 | 17.5 | 11 1/2 | 1 | 8,750,000 | 1.8 | 5.25 | 1 | 2,139,600 | 0.5 |
| | | | | 10 | 34 | 333,159,113 | 67.6 | 12 | 2 | 10,550,000 | 2.1 | 5.75 | 1 | 3,130,465 | 0.7 |
| | | | | 0 | 4 | 12,745,511 | 2.8 | 13 | 18 | 85,559,380 | 17.8 | 6 | 3 | 15,520,000 | 3.1 |
| | | | | | | | | 15 | 3 | 13,750,000 | 2.8 | 引出 時 國 際 金 利 | 3 | 12,966,714 | 2.6 |
| | | | | | | | | 16 | 1 | 5,180,000 | 1.0 | | | | |
| | | | | | | | | 16 1/2 | 1 | 4,750,000 | 0.9 | | | | |
| | | | | | | | | 23 | 1 | 926,740 | 0.2 | | | | |
| | | | | | | | | 30 | 32 | 308,159,113 | 62.5 | | | | |
| | | | | | | | | 40 | 2 | 25,000,000 | 5.0 | | | | |
| 合計 | 70 | 492,687,923 | 100.0 | 合計 | 70 | 492,687,923 | 100.0 | 合計 | 70 | 492,687,923 | 100.0 | 合計 | 70 | 492,687,923 | 100.0 |

資料：經濟企劃院, 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推進現況 1969. 1. 31. 現在

3. 民間商業借款

表14와 같이 民間商業借款確定額은 1969年 1月 31日 現在 200件 928,754,784 弗이고 物資 導入實績額은 601,650千弗이다. 이中 第1次産業에 24件 73,702,667弗인데 全體의 7.9%이고 全額이 漁業에 導入하는 것이다. 第2次産業에 120件 487,451,162弗인데 全體의 52.3%이고 이中 鑛業에 1件 1,500,000弗이고, 工業에 119件 485,951,162弗이다. 이工業中 食品에 6件 8,374,878弗, 펄프 및 製品에 11件 17,823,014弗, 紡織物에 19件 58,838,239弗, 化學纖維에 25件 88,092,794弗, 肥料에 4件 49,923,144弗, 窯業, 세멘트, 유리에 13件 90,187,459弗, 精油에 2件 69,500,000弗, 化學工業에 9件 25,334,297弗 鐵 및 非鐵金屬製品에 15件 44,740,877弗, 電子 및 電氣機器에 4件 6,047,000弗 機械에 8件 23,847,385弗, 其他 3件 3,242,075弗이다. 第3次産業에 56件 367,600,955弗인데 全體의 39.8%이다. 이 第3次産業中 電力에 21件 177,722,336弗, 輸送에 18件 132,079,890弗, 通信에 4件 3,683,752弗, 建設에 13件 54,114,977弗이다.

<表 14> 民間商業借款(1969. 1. 31 現在) (單位: 弗)

| 產業別 | 件數 | 金額 | 構成比(%) |
|-------------|-----|-------------|--------|
| 第1次産業 | 24 | 73,702,667 | 7.9 |
| 漁業 | 24 | 73,702,667 | |
| 第2次産業 | 120 | 487,451,162 | 52.3 |
| 鑛業 | 1 | 1,500,000 | |
| 工業 | 119 | 485,951,162 | |
| 食品 | 6 | 8,374,878 | |
| 펄프 및 製紙 | 11 | 17,823,014 | |
| 紡織織物 | 19 | 58,838,239 | |
| 化學纖維 | 25 | 88,092,794 | |
| 肥料 | 4 | 49,923,144 | |
| 窯業, 세멘트, 유리 | 13 | 90,187,459 | |
| 精油 | 2 | 69,500,000 | |
| 化學 | 9 | 25,334,297 | |
| 鐵 및 非鐵金屬製品 | 15 | 44,740,877 | |
| 電子 및 電氣機器 | 4 | 6,047,000 | |
| 機械 | 8 | 23,547,385 | |
| 其他 | 3 | 3,242,075 | |
| 第3次産業 | 56 | 367,600,955 | 39.8 |
| 電力 | 21 | 177,722,336 | |
| 輸送 | 18 | 132,079,890 | |
| 通信 | 4 | 3,683,752 | |
| 建設 | 13 | 54,114,977 | |
| 計 | 200 | 928,754,784 | |

資料: 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推進 現況 1969년 1. 31 현재

民間商業借款을 國別로 보면 表15와 같이 日本에서 借款確定額이 310.3百萬弗인데 導入實績은 194.0百萬弗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美國에서 借款確定額이 201.2百萬弗인데 導入實績은 156.6百萬弗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고, 西獨에서 借款確定額이 142.3百萬弗인데 導入實績이 79.1百萬弗로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表 15> 民間商業借款國別狀況(1968年 12月末 現在) (單位: 百萬弗)

| 國別 | 借款確定額 | 導入實績 |
|----|-------|-------|
| 美國 | 201.2 | 156.6 |
| 日本 | 310.3 | 194.0 |
| 西獨 | 142.3 | 79.1 |
| 伊佛 | 150.3 | 70.8 |
| 英國 | 60.6 | 12.8 |

| | | |
|-----|-------|-------|
| 其 他 | 74.1 | 59.3 |
| 計 | 939.0 | 572.7 |

資料 : 韓國銀行, 1968年度 年次報告書

日本の 民間商業借款의 特徵은 大單位 세멘트工場, 韓國肥料工場, 폴리아크릴工場등 比較的 높은 收益性이 期待되는 獨寡占的產業에 대하여 投資를 集中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美國의 民間商業借款은 第1, 第2 精油工場 製罐工場, 카바이트工場, 冷間壓延工場등 事業에 投資하고 있다. 以上에서 미루어보면 日本資本은 美·獨과는 달리 初期投資規模가 크고 年間收益性이 낮은 社會間接資本에의 投資는 忌避하고 收益性이 높고 初期投資가 過히 크지않은 直接的 生産傳動部門中, 特히 獨寡占的인 것을 選擇하고 있다.

民間商業借款은 表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償還期間이 6—8년이 78件 39.4%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3—5년이 71件 35.9%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고, 9年以上이 49件 24.7%로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據置期間이 1—2년이 135件 68.2%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없음이 46件 23.2%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3—4년이 16件 8.5%로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6年以上이 1件으로서 0.5%를 차지하고 있다. 着手金없음이 109件 55.1%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5—10%가 45件 22.7%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 15—20%가 44件 22.2%로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年利率을 보면 5.5—6%가 143件 72.6%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6.5—7%가 39件 19.8%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고, 4.5—5%가 8件 4.1%로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8%以上 7件 3.6%를 차지하고 있다.

<表 16> 民間借款條件

| 償 還 期 間 (據置期間을 包含함) | | | | 據 置 期 間 | | | | | 着 手 金 | | | | 年 利 率 | | | | |
|------------------------|------|------|-------|---------|------|------|------|-------|-------|-------|--------|-------|--------|--------|--------|-----|-------|
| 3—5年 | 6—8年 | 9年以上 | 合計 | 없음 | 1—2年 | 3—5年 | 6年以上 | 合計 | 없음 | 5—10% | 15—20% | 合計 | 4.5—5% | 5.5—6% | 6.5—7% | 8% | 合計 |
| 71 | 78 | 49 | 198 | 46 | 135 | 16 | 1 | 198 | 109 | 45 | 44 | 198 | 8 | 143 | 39 | 7 | 197 |
| 35.9 | 39.4 | 24.7 | 100.0 | 23.2 | 68.2 | 8.1 | 0.5 | 100.0 | 55.1 | 22.7 | 22.2 | 100.0 | 4.1 | 72.6 | 19.8 | 3.6 | 100.0 |

資料, 韓國銀行, 1968年度 報告書

4. 直接投資

政府는 1965年度부터 外資導入政策을 借款에서 直接 및 合作投資로 轉換하였다. 그러므로 從來의 外資調達方策으로 借款에만 依存하여 오던 것을 上揚하고 元利金償還의 負擔도 없고 外資가 導入된 後까지도 投資責任을 지는 外國企業家에 의한 直接投資를 積極 誘致하는 方面으로 政策을 轉換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政府의 努力의 結果로 表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9年 1月 31日 現在로 對韓直接投資의 認定額을 보면 113件 91,245千弗이고 導入實績은 53,958千弗이다. 直接投資가 가장 많은 年度는 1968年에 51件 31,179千弗이고 그다음은 1967年

에 24件 24,961千弗이고, 1965년에는 11件 22,339千弗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表 17> 年度別 直接投資 確定額(1969年 1月 31日現在) (單位:千弗)

| 年 度 別 | 件 數 | 確 定 額 |
|-------|-----|--------|
| 1962 | 2 | 2,120 |
| 1963 | 3 | 5,442 |
| 1964 | 5 | 757 |
| 1965 | 11 | 22,339 |
| 1966 | 16 | 4,401 |
| 1967 | 24 | 24,961 |
| 1968 | 51 | 31,179 |
| 1969 | 1 | 46 |
| 合計 | 113 | 91,245 |

資料: 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 綜合外資導入推進現況 1969. 1. 31 現在

現行外資導入法과 關係法規를 中心으로 直接 및 合作投資에 대한 政策을 보면 外國人投資 誘致政策과 投資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政策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外國人投資獎勵政策을 概觀하면 ① 外國人直接投資를 獎勵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 있어서 外國人の 株式 및 持分の 限度를 두지 않고 있다. 單獨 또는 合作投資를 區分하지 않고 投資比率를 無制限 許容하고 있다. ② 出資金과 果實의 送金 또는 再投資에 대한 制限을 緩和하고 있다. ③ 外國人投資 企業에 대한 所得稅, 法人稅, 財産稅, 取得稅 등의 課稅를 減免措置하고 있다. ④ 外國人 投資企業의 모든 財産은 法律에 의해서 保障되며 法律에서 規定한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營業에 있어서 內國人和 差別待遇를 받지 않는다는 保障立法을 實施하였다. ⑤ 外國人投資에 關聯되는 諸般 行政節次를 簡素化 및 迅速化하여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經濟外交를 強化하는 한편 投資斡旋機構로서는 于先 韓國外換銀行에 貿易投資相談部를 두고 있다.

둘째, 投資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한 施策을 보면 ① 外國人投資는 新規投資에만 限定시키고 있다. ② 外國人投資는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認可基準을 보면 ㉠ 國際收支改善에 顯著히 寄與하는 事業, ㉡ 重要産業 또는 公益事業의 發達에 寄與하는 事業 ㉢ 經濟開發計劃에 策定되어 있는 事業등에 優先順位를 두고 있다. ③ 外國人の 投資目的物은 ㉣ 對外支給手段 또는 이의 直接交換으로 인하여 생기는 內國支給手段 ㉤ 投資利益 ㉥ 資本材 ㉦ 工務所有權 또는 技術등에 限定시킴으로써 國內經濟에 해로운 物資의 導入을 規制하고 있다. ④ 政府는 外國人 投資에 대하여 出資할 目的物의 導入狀況과 納入狀況 및 其他 認可條件의 履行狀況을 調査是正하여 外國人投資家는 導入된 物資를 事前 承認없이 認可된 目的의 以外에 使用하거나 登錄된 以外의 營業을 하는 것을 強力히 禁止하고 있으며 向後 每年 總

額 20%以上 送金도 規制하고 있다. 끝으로 投資國이 自由陣營國家라 할지라도 共產國家와 去來하고 있는 企業의 國內投資는 行政力에 의해서 이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表18과 같이 直接投資의 國別導入狀況을 보면 美國이 投資認可額이 66.1百萬弗, 導入實績은 44.3百萬弗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日本의 投資認可額이 18.9百萬弗, 導入實績이 3.1百萬弗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다. 直接投資中 美國이 第1位를 차지한 原因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韓美兩國이 緊密한 關係가 있을 뿐만 아니라 韓美間에 [投資保障協定이 締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表 18> 直接投資의 國別導入狀況(1969. 1. 31) (單位: 百萬弗)

| 國 別 | 投資認可額 | 導入實績 |
|-----|-------|------|
| 美 國 | 66.1 | 44.3 |
| 日 本 | 18.9 | 3.1 |
| 其 他 | 6.5 | 5.8 |
| 合 計 | 91.6 | 53.3 |

資料: 韓國銀行, 1968年度 年次報告書

表19와 같이 直接投資의 業種別狀況을 보면 製造業의 認可額이 72.3百萬弗로서 全體의 78.9%이고 導入實績이 49.2百萬弗로서 全體의 92.3%인데 이中 肥料의 認可額이 22.6百萬弗, 導入實績이 22.4百萬弗로서 第1位를 차지하고 있고, 纖維의 認可額이 12.8百萬弗, 導入實績이 3.1百萬弗로서 第2位를 차지하고 있고, 電子製品의 認可額이 11.1百萬弗, 導入實績이 6.5百萬弗로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運輸觀光은 그 認可額이 9.8百萬弗로서 全體의 10.7%, 導入實績이 2.7百萬弗로서 全體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直接投資가 纖維와 電子製品과 같은 勞動集約的產業에 集中되 있는 것은 韓國에 있어서 勞動力이 豊富하고 賃금이 낮기 때문이다.

<表 19> 直接投資의 業種別導入狀況(1968年 12月末 現在) (單位: 百萬弗)

| 業 種 | 投資認可額 | 構成比(%) | 導入實績 | 構成比(%) |
|-------|-------|--------|------|--------|
| 製 造 業 | 72.3 | 78.9 | 49.2 | 92.3 |
| 食品加工 | 0.2 | | 0.1 | |
| 纖 維 | 12.8 | | 3.1 | |
| 肥 料 | 22.6 | | 22.4 | |
| 石 油 | 7.7 | | 7.7 | |
| 電子製品 | 11.1 | | 6.5 | |
| 其 他 | 17.9 | | 9.4 | |
| 運輸觀光 | 9.8 | 10.7 | 2.7 | 5.0 |
| 其 他 | 9.5 | 10.4 | 1.4 | 2.7 |
| 計 | 91.6 | 100.0 | 53.3 | 100.0 |

資料: 韓國銀行, 1968年 年次報告

表20과 같이 直接投資의 持株比率은 1968年 12月末 現在로 50%未滿이 41件 16,171千弗로서 17.7%를 占하고 있으나 50%以上이 72件 75,389千弗로서 8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中 50%가 21件 44,129千弗로서 48.2% 51—99%가 28件 11,861千弗로서 12.9%, 100%가 23件 19,398千弗로서 21.2%를 차지하고 있다.

<表 20> 直接投資의 持株比率(1968年 12月末 現在) (單位:千弗)

| 比 率 | 件 數 | 金 額 | 構 成 比 |
|-------------|-----|--------|-------|
| 1. 50%未滿 | 41 | 16,171 | 17.7 |
| 2. 50%以上 | 72 | 75,389 | 82.3 |
| (i) 50% | 21 | 44,129 | 48.2 |
| (ii) 51—99% | 28 | 11,861 | 12.9 |
| (iii) 100% | 23 | 19,398 | 21.2 |
| 計 | 113 | 91,561 | 100.0 |

資料: 韓國銀行, 1968年度 年次報告

表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獨投資보다 合作投資가 월등히 많은 理由는 ① 政府가 民間商業借款 導入을 抑制하고 合作投資를 獎勵하는 外資導入 政策의 轉換 ② 國內企業家의 能動的인 投資誘致活動의 結果 ③ 外國投資家와 合作投資를 하면 企業活動에 必要한 所要資本을 確保할 뿐만 아니라 高等의 技術導入, 企業經營知識 및 市場組織등을 獲得할 수 있는등 利益點이 있다. 한편, 外國人 投資中 單獨投資가 合作投資에 比해서 훨씬 적은 原因은 外國人의 直接投資與件이 充分히 具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技術導入

技術導入 狀況을 보면 表21·A와 같이 技術導入 契約이 1962년부터 1969年 1月 31日 現在까지 104件인데 日本이 64件으로서 全體의 6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에 美國이 28件으로서 全體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西獨이 4件 其他가 8件이다.

<表 21. A> 國家別 技術導入 契約數(1969年 1月 31日 現在)

| 年度別 | 美 國 | 日 本 | 西 獨 | 其 他 | 合 計 |
|------|-----|-----|-----|-----|-----|
| 1962 | 4 | — | — | 3 | 7 |
| 1963 | 2 | — | — | — | 2 |
| 1964 | 1 | — | — | — | 1 |
| 1965 | 3 | — | — | 1 | 4 |
| 1966 | 5 | 8 | 2 | — | 15 |
| 1967 | 7 | 25 | — | 1 | 33 |
| 1968 | 6 | 31 | 2 | 3 | 42 |
| 1969 | — | — | — | — | — |

會計 28 64 8 104

資料：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綜合外資導入推進現況 1969. 1. 31 現在

다음에 技術導入의 對象業種을 보면 表21·B와 같이 第1次産業이 1件이고 第2次産業이 88件인데, 그中 電子 및 電氣機器가 26件, 機械가 20件, 化學工業이 17件이다. 第3次産業은 15件인데, 그中 通信이 10件을 차지하고 있다. 技術導入 使用料는 電子工業部門이 大體로 純販賣高의 2—3%이며 其他部門에서는 製品純賣上額의 2—5%로 되어 있다.

<表 21. B> 業種別 技術導入 契約數(1969年 1月 31日 現在)

| 業 業 別 | 件 數 |
|------------|-----|
| 第1次産業 | 1 |
| 農 業 畜 産 | 1 |
| 第2次産業 | 88 |
| 食 品 | 3 |
| 판 프 製 紙 | 2 |
| 紡 織 織 物 | 6 |
| 化 學 纖 維 | 4 |
| 窯 業, 세 멘 트 | 2 |
| 精 油 | 1 |
| 化 學 工 業 | 17 |
| 鐵 및 非鐵金屬 | 5 |
| 電子 및 電氣機器 | 26 |
| 機 械 | 20 |
| 其 他 | 2 |
| 第3次産業 | 15 |
| 電 力 | 3 |
| 通 信 | 10 |
| 建 設 | 2 |
| 計 | 104 |

資料：經濟企劃院經濟協力局，綜合外資導入推進現況 1969. 1. 31 現在

6. 元利金 償還實績

表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年 12月末 現在 元利金 償還 實績을 보면 財政借款의 元금이 467.7百萬弗이고 利자가 198.7百萬弗로서 合計 666.4百萬弗이다. 民間商業借款의 元금이 1,939.0百萬弗이고 利자가 245.6百萬弗로서 合計 1,184.6百萬弗인데 이中 政府支給保證의 元금이 341.0百萬弗이고 그 利자가 92.7百萬弗로서 合計 433.7百萬弗이다. 市銀支給保證의 元금이 515.9百萬弗이고 그 利자가 122.0百萬弗로서 合計 637.9百萬弗이다.

支給保證이 不必要한 것의 元금이 82.1百萬弗, 그 利자가 30.9百萬弗, 合計 113.0百萬弗이다.

財政借款과 民間商業借款의 合計 元金이 1,406.7百萬弗, 合計 利子가 444.3百萬弗, 總合計가 1,851.0百萬弗이니, 莫大한 負債을 지고 있다. 年度別元利金償還實績을 보면 1967년에 財政借款償還은 3.1百萬弗, 1968년에 5.8百萬弗, 合計 11.6百萬弗이고 1967년에 民間商業借款 償還은 32.7百萬弗, 1968년에 46.1百萬弗, 合計 109.7百萬弗이다. 財政借款과 民間商業借款과 의 合計償還額은 121.2百萬弗이다.

<表 22> 元利金 償還狀況(1968年 12月末 現在) (單位: 百萬弗)

| 種 別 | 對外負債總額 | | | 償還實績 | | |
|-------------|---------|-------|---------|------|------|--------|
| | 元金 | 利子 | 會計 | 67年 | 68年 | 68年末累計 |
| I. 財 政 借 款 | 467.7 | 198.7 | 666.4 | 3.1 | 5.8 | 11.6 |
| II. 民間商業借款 | 939.0 | 245.6 | 1,184.6 | 32.7 | 46.1 | 109.7 |
| i) 政府支給保證 | 341.0 | 92.7 | 433.7 | 23.1 | 27.6 | 79.4 |
| ii) 市銀支給保證 | 515.9 | 122.0 | 637.9 | 7.0 | 14.7 | 21.6 |
| iii) 支給保證不要 | 82.1 | 30.9 | 113.0 | 2.5 | 4.3 | 8.7 |
| 合計(I + II) | 1,406.7 | 444.3 | 1,851.0 | 35.8 | 51.8 | 121.2 |

資料: 韓國銀行, 1968年 年次報告書

IV. 經濟開發計劃과 外資導入基準

經濟開發計劃은 國家의 經濟的 目標 達成을 위해서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하도록 投資計劃을 하는 것이다. 投資計劃을 하려면 資本이 形成되어야 한다. R. Nurkse는 後進國 經濟開發에 있어서 資本形成이 絕對的인 必須要因이라고 主張하였다.¹

그러나 A. O. Hirschman은 資本形成이 必要하기는 하나 資本의 配分이 더욱 중요한 要件이라고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資本形成問題를 資本配分問題와 따로 分離해서 取扱할 것이 아니라 經濟開發 進行過程內에서 아울러 解決해야 한다는 것이다.²

즉 資本의 合理的 配分에 의하여 經濟開發을 效率的으로 達成하는 過程內에서 資本形成問題도 解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後進國에서 資本이 不足한 것은 事實이나 現存한 資本마저 退藏되거나 혹은 浪費되거나 하여 잘못配分(misallocation)되면 賦存資源이 生産的으로 利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經濟開發에 있어서 資本調達問題도 重大하지만 投資選擇問題가 더욱 重要的 것이다. 즉 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 資本調達도 重要的 問題이기는 하지만 投資하여야 할 對象部門이 너무 많기 때문에 限定된 資本을 어느部門에 던

①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7. p.1

②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62 p.5 p.28

저 투자하여만 最大의 투자效果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투자基準(investment criteria)를 세우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 투자基準을 決定할때 先進國에서는 生産效果보다도 有效需要를 增大시켜 資本設備를 完全移動시키는 데 經濟政策的 焦點을 두고 있으나 後進國에서는 有效需要보다도 生産力을 增大시키는 데 經濟政策的 重點을 두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資本이 豊富하기 때문에 投資計劃을 樹立하지 아니해도 經濟開發이 可能하지만 後進國에서는 資本이 不足하기 때문에 資本의 效率의 配分, 費用節約과 時間短縮등을 同時에 考慮해서 投資順位를 樹立하여야 한다. 다음에, W. W. Rostow는 經濟成長을 歷史的 觀點에서 劃期的이고 持續적인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國家에서는 언제나 한두개의 先導産業이 있다는 것을 主張하니³ 後進國에서 經濟開發을 推進하는 데 投資順位를 提示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W. W. Rostow에 의하면 投資는 戰略的이고 波及效果가 큰 先導的 産業에 集中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經濟開發計劃은 沈滯的 産業構造에서 發展的 産業構造로 變革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어떤 産業을 育成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러說이 있다.

R. Nurkse는 ① 傳統的 輸出産業 ② 輸出産業 ③ 內需産業의 3者를 市場問題와 比較하여 內需産業이 後進國經濟開發에 있어서 積極的으로 育成하여야 할 産業이라고 主張하였다.⁴

왜냐하면 傳統的 輸出産業의 商品에 대해서는 需要成長의 展望이 밝지 못하여 傳統的 輸出産業에는 期待할 수 없고, 또 輸出産業에 대해서는 先進國과의 競爭때문에 그 産業도 큰 期待를 걸 수 없다. 그러나 內需産業의 商品은 國內市場이 確實히 確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産業이 가장 安定하다는 것이다. 또한 A. O. Hirschman에 의하면 後進國經濟는 相互依存性과 連鎖性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에 國內第1次産業이나 혹은 輸入第1次産業의 生産物을 原料로 生産하여 最終需要에 必要한 財貨工業과 輸入本製品을 가지고 生産하여 最終需要에 必要한 財貨工業을 建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⁵ H. Myint는 後進國을 人口問題와의 關係에서 人口過少國은 傳統的 輸出産業, 人口過剩國은 內需産業, 人口中立國은 輸出産業에 重點을 둘 것을 示唆하고 있다.⁶

以上과 같이 後進國의 初期 經濟開發段階에서는 不均衡成長方法을 취하여야 하나 發展窮極에 가서는 均衡成長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産業面의 不均衡의 深化도 經濟開發計劃에서 取扱하여야 한다.

③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1960. pp. 145-7.

④ R. Nurkse, *ibid.*, pp. 14-5

⑤ A. O. Hirschman, *ibid.*, pp. 103-13

⑥ H. Myint, *The Economics of Developing Countries*, 1964, pp. 157-9.

우리나라는 60%의 人口가 農業部門에 吸收되어 있는 農業國이며 工業水準이 낮은 나라이고 또한 農業과 工業間의 生産性的 格差가 큰 나라이므로 經濟開發方法으로서 工業化方式을 취하였다. 工業化方式은 工業部門이 生産성이 높고 雇傭量을 擴大시켜 農業部門의 潛在失業者를 많이 吸收하고 한나라 全體의 生産性 乃至 1人當所得을 增大시켰다. 이러한 工業化方式過程에서 傳統的 産業인 農業이 停滯化하여 오히려 工業의 發展을 沮害하고 따라서 經濟發展을 沮止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最大量의 食糧輸入에 따라 外換部門에 큰 壓力을 加하여 資本財와 原料輸入에 支障을 주고 있어 工業發展에 支障을 주고 있다. 農業生産의 後退로 因하여 食糧價格의 騰貴는 一般物價水準 騰貴를 招來하여 家計生活의 向上과 開發計劃의 進行에 큰 支障을 주고 있다. 따라서 農業革命이 先行되어 農業部門의 基盤위에 工業部門을 發展시켜야만 長期的으로 經濟가 發展하게 된다. 다음에, 工業部門間의 調整問題가 必要하다. 開發計劃에 있어서 投資 優先順位를 重工業에 置重할 것인가 혹은 輕工業에 置重할 것인가 하는 選擇問題가 論議된다. 經濟發展을 短期的으로 達成하려면 輕工業 優先方法을 취하여야 하나 長期的으로 達成하려면 重工業優先方法을 취하여야 한다.

다음에 經濟開發에 있어서 投資基準에 대한 諸說을 考察해보자. H. Myint 에 의하면 人口過剩國의 投資基準은 雇傭과 消費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短期計劃으로서 勞動集約(labor intensive)的方法을 選擇하여야 하나 長期計劃으로서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資本集約(capital intensive)的方法을 취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⁷ 다음에 投資基準으로서 要素集約的基準(factor intensive criteria)을 들 수 있는데 이것에는 N. S. Buchanan 이 主張하는 勞動集約(labor intensive)的事業과 W. Galeson 과 H. Leibenstein 등이 主張하는 資本集約(Capital-intensive)的事業을 投資對象으로 選擇하는 것이 가장 效率的 經濟開發 方式이라는 두가지 見解가 있다. N. S. Buchanan 에 의하면 後進國에서는 資本不足에 비하여 勞動力이 豊富하므로 資本에 비하여 勞動力을 많이 使用하도록 하여야 한다.⁸

W. Galeson 과 H. Leibenstein 은 勞動集約的 基準보다 資本集約的 基準에 의하여 投資配分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W. Galeson 과 H. Leibenstein 은 勞働者 1人當의 生産力을 擴大化하기 위하여 勞働者 1人當의 資本額을 極大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資本集約的 基準에 의하여 資本을 配分하여야 한다는 것은 大規模의 現代技術導入과 直結해서 資本額을 增大시키는 것이다.⁹

다음에 投資基準를 社會的 限界生産力의 多少를 尺度로 하여 決定해야 한다는 H. B. Che-

⑦ H. Myint, *ibid.*, p142

⑧ N. S. Buchanan and A. S. Lellis,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1955, p. 64.

⑨ W. Galeson and A. Leibenstein, *Investment Criteria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55, p. 351

Chenery의 社會的 限界生産力 基準(social marginal productivity criteria)이 있다. 이 基準은 各種 用途에 資本이 社會的 限界生産力이 均等되도록 資源을 配分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社會的 費用과 私的 費用이 乖離되어 있는 後進國에서는 完全競爭에 의하여 資源이 配分될 수 없으므로 社會的 限界生産力을 가지고 資源을 配分하여야 한다¹⁰

끝으로 資本配分の 基準으로서 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事業인가, 혹은 外貨를 節約할 수 있는 事業인가를 判斷하는 外換利益 基準이 있다. 이 基準은 後進國에서는 貿易逆調 때문에 外貨獲得이 重大한 問題이기 때문에 外貨獲得事業을 育成하거나 혹은 外貨節約事業을 育成하거나 하는 것을 主眼으로 하는 投資對象選擇의 基準으로 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資源配분에 使用하는 各種基準이 있는데, 우리나라 第2次 5個年計劃에서 使用한 投資基準은 ① 純 國際收支效果 ② 商業的收益性 ③ 雇傭效果 ④ 附加價值效果 등 複數指標에 의한 Nathan 방식의 投資基準을 使用하고 있다.¹¹

V. 外資導入이 經濟에 미친 影響

外資導入은 우리나라 經濟에 좋은 影響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쁜 影響도 주었다. 먼저 좋은 影響을 준것을 檢討해 보자.

첫째, 外資導入은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作用을 하였다. 外資導入은 資本뿐만 아니라 資本財, 새로운 技術 및 새로운 經營方法이 導入되어 投資活動을 刺戟하는 先導的 機能¹²을 함으로 生産을 增大시켰다. 國民總生産의 增大는 資本形成을 促進하는 作用을 하였다. 그러므로 外資導入은 經濟成長과 資本形成을 促進하였다. 우리나라가 1962年에서 1966년까지 第1次 5個年計劃期間中 年平均 8.3%라는 高度經濟成長率을 이룩하였는데 이것은 外資導入의 增大에 依存한 것이다.

表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成長率과 資本形成에 대한 外資導入의 寄與度는 거의 비슷한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3.4%의 高度成長을 기록한 1966년에는 資本形成에 대한 外資導入의 寄與度가 24%에 이르렀다. 한편, 法人企業의 資金調達現況을 보면 1966年の 對外債務依存度는 38%에 達했으며 다음으로 成長率이 높았던 1963년에는 17.4%였다. 또한, 外資導入額의 比重이 컸던 해는 國內貯蓄의 絕對額도 컸던 點에 비추어 外資導入이 國內資本形成에도 至大한 影響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¹⁰ H. B. Chenery,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Criter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53, p. 76

¹¹ Nathan, Advisory Group Rules and Scope for Application of Investment Criteria.

¹² Nurul Islam,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p. 149

<表 23> 國內總資本形成에 대한 外資導入의 寄與度

| 年 度 別 | 國民總生産 | 對前年比成長率(%) | 國內總資本形成 | 外資導入額 | 寄與度(%) |
|-------|--------|------------|---------|-------|--------|
| 1962 | 634.97 | 3.5 | 45.43 | 0.93 | 2.0 |
| 1963 | 693.03 | 9.1 | 89.68 | 9.40 | 10.5 |
| 1964 | 750.31 | 8.3 | 101.24 | 5.42 | 5.4 |
| 1965 | 805.85 | 7.4 | 118.48 | 12.57 | 10.6 |
| 1966 | 913.82 | 13.4 | 223.11 | 53.58 | 24.0 |
| 平 均 | | 8.3 | | | 27.7 |

資料：韓銀 및 經濟企劃院資料에 의해서 作成함.

註：國民總生産의 成長率은 1965年 不變市場 價格임.

둘째, 外資導入은 産業構造를 近代化시키는 作用을 했다. 外資導入은 生産패턴과 市場 및 價格構造를 變革시키면서 産業構造를 近代化시켰다. 表9와 같이 1969年 1月 31日 現在 各 産業別 外資導入確定額을 보면 第2次産業이 全體의 45.3%, 第3次産業이 48.7%이니 外資導入은 製造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形成 特히 建設業部門의 飛躍的인 擴大는 産業構造의 近代化에 크게 寄與하였다. 表24와 같이 1961年의 第1, 2, 3次産業의 構成比는 39.7 : 20.4 : 39.9이었던 것이 1966年에는 37.9 : 24.8 : 39.3으로 變貌되었는데 이것은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製造業部門의 集中的인 投資에 의해서 주로 基因된 것이지만 外資導入事業에 의해서도 많은 影響을 받은 것이다.

<表 24> 産業別所得構成比의 推移(1965年 不變市場價格) (單位：10億원)

| 年 度 | 産業別國民總生産 | | | 産業別所得構成比(%) | | | | |
|------|----------|--------|--------|-------------|-------|-------|-------|-------|
| | 計 | 第1次産業 | 第2次産業 | 第3次産業 | 計 | 第1次産業 | 第2次産業 | 第3次産業 |
| 1962 | 634.97 | 252.37 | 129.60 | 253.00 | 100.0 | 39.7 | 20.4 | 39.9 |
| 1963 | 693.03 | 270.56 | 150.37 | 272.10 | 100.0 | 39.1 | 21.7 | 39.2 |
| 1964 | 750.31 | 314.31 | 159.51 | 276.49 | 100.0 | 41.9 | 21.3 | 36.8 |
| 1965 | 805.85 | 311.63 | 194.36 | 299.86 | 100.0 | 38.7 | 24.0 | 37.3 |
| 1966 | 913.82 | 345.91 | 227.36 | 340.55 | 100.0 | 37.9 | 24.8 | 37.3 |
| 平 均 | | | | | | 39.5 | 22.4 | 38.1 |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計定, 1967. pp. 154—5

셋째, 外資導入은 國際收支를 改善하는 役割을 하였다. 外資導入은 貿易패턴과 國際收支에 影響을 주는데 貿易패턴에 대해서는 原料輸出과 製品輸入의 貿易패턴에서 製造品輸出貿易으로 發展시키고, 國際收支에 대해서도 外資가 輸入代替産業과 輸出産業에 投資된 경우 好轉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外國資本流入에 따르는 發展패턴과 關聯해서 構造的 變化에 따라서 交易條件이 惡化될 수도 있으며¹³ 元利金 償還造程에 있어서 國際收支에 대한 壓力이 커질 것이다.

¹³ Gerald. M. Meier,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pp. 94—5

國際收支效果의 例로서 第 1 次 5 個年計劃의 最終年度인 1966年度의 借款企業體의 國際收支效果를 보면 商品輸出額이 27百萬弗이며 이중에서 輸出用原資材輸入額이 10百萬弗을 除外한 外資稼得額은 17百萬弗이고, 借款企業의 輸入代替效果는 水泥, 精油, 肥料工場등의 竣工으로 약 58百萬弗에 達하였으나 原料 輸入額 21百萬弗을 差減하면 37百萬弗이다. 따라서 그年度中の 借款事業의 直接的인 國際收支 黑字效果는 54百萬弗인데 反하여 元利金 償還額은 14百萬弗이었으므로 約 30百萬弗의 純黑字效果를 나타냈다고 할수있다.

넷째, 外資導入은 連鎖效果를 增大시키는 作用을 하였다. 連鎖效果(linkage effect)¹⁴에는 前方連鎖效果(forward linkage effect)와 後方連鎖效果(backward linkage effect)가 있는데 이것은 始源의 投資가 다른 새로운 投資를 誘發시키는 波及效果이다. 外資導入은 生産要素에 대한 需要가 增加되므로 要素價格이 騰貴하여 要素所得이 上昇되고 消費財, 生産財의 價格이 下落하여 內部經濟(internal economies)와 外部經濟(external economies)를 創出하므로써 前後方連鎖效果인 總連鎖效果가 增大하여 經濟開發效果를 增大시키었다.¹⁵

다섯째, 外資導入은 雇傭量을 增加시키는 役割을 하였다. 外資導入에 따라 資本財를 爲始하여 새로운 技術導入이 促進되어 産業構造가 變動함에 따라 就業人口가 增大되었다. 表25와 같이 第 1 次産業의 就業者構成比는 꾸준히 減少되어온 反面, 第 2 次 및 第 3 次産業의 就業者構成比는 持續的인 增加를 보이고 있다. 1962년에 第 1 次, 第 2 次, 第 3 次 産業의 就業者 構成比가 65.2 : 10.7 : 24.1이고 總就業者數가 7,844千名이던 것이 1966년에는 57.9 : 13.4 : 28.7이고 總就業者數는 8,659千名으로 變動되므로써 期間中 第 1 次産業의 構成比는 7.3% 下落을 보인 反面 第 2 次産業은 2.4% 第 3 次産業은 4.6% 各各 上昇하고 總就業者數도 711千名으로 增大하였다. 그리고 技術導入促進도 各産業別의 就業者數를 變動시키는 同時에 總就業者數를 增大시키는 作用을 하였다.

<表 25> 産業別就業者構成比의 推移

| 年 度 | 年度産業別就業者 數(千名) | | | | 産業就業者構成比(%) | | | |
|------|----------------|---------|---------|---------|-------------|---------|---------|---------|
| | 計 | 第 1 次産業 | 第 2 次産業 | 第 3 次産業 | 計 | 第 1 次産業 | 第 2 次産業 | 第 3 次産業 |
| 1962 | 7,944 | 5,179 | 850 | 1,915 | 100.0 | 65.2 | 10.7 | 24.1 |
| 1963 | 7,947 | 5,022 | 899 | 2,026 | 100.0 | 63.2 | 11.3 | 25.5 |
| 1964 | 8,210 | 5,084 | 929 | 2,197 | 100.0 | 61.9 | 11.3 | 26.8 |
| 1965 | 8,522 | 5,000 | 1,136 | 2,386 | 100.0 | 58.7 | 13.3 | 28.0 |
| 1966 | 8,659 | 5,013 | 1,164 | 2,482 | 100.0 | 57.9 | 13.4 | 28.7 |

¹⁴ A. Hirschman, *ibid.*, pp. 69-83

¹⁵ Raymond, F. Mikesell, U.S. Private and Government Invest Cbroad p. 148

平 均 61.4 12.0 26.6

資料：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 調査 1966.

企劃調整官. 第 1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 評價報告書

다음에 外資導入이 國民經濟에 나쁜 影響을 준 것을 檢討해 보자. 첫째, 外資를 適正規模의 策定없이 導入하였다. 外資導入은 適正規模의 設定없이 量的으로 擴大되어 外資의 受客能力과 元利金 償還能力에 대한 檢討가 充分치 못하여 一部の 代拂이 發生했을 뿐만 아니라 內資調達用現金借款을 導入케 하였다. 그리고 投資優先順位에 있어서 經濟開發 5 個年計劃과 유리되어 第 2 次 5 個年計劃의 戰略産業部門인 鐵鋼, 機械, 石油化學등의 導入建設은 不振한 反面, 化學纖維, 遠洋漁業, 貨物船 및 重裝裝備導入은 超過導入의 傾向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每年 國民總生産의 5%가 넘는 借款이 導入되고 있는 데 이것에 對應하는 內資가 調達되지 못하고 있다. 外資導入에 對應해서 內資가 調達되지 못하면 工場建設과 運營이 順調롭지 못하고 이러한 隘路를 打開하기 위하여 債權發行과 現金借款으로 通貨가 膨脹하며 따라서 인플레이션要因이 累積하여 物價가 騰貴하였다. 以上과 같이 債權發行 및 現金借款 등의 인플레이的方式에 의한 開發金融政策을 씌므로써 經濟安定 基盤을 沮害하고 있다.

둘째, 外資導入事業의 選定과 規模를 잘못 잡았다.

外資導入事業選定の 缺陷를 보면 第 1 次産業部門에 대한 投資가 疎忽하고 外資導入을 製造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에 42%나 集中 投資했고 農漁業部門에는 全體의 14%에 不過하며, 그리고 外資導入이 不要不急의 業種을 먼저 建設하는 過誤를 빈번히 犯하였다. 輸入代替를 방자한 消費財産業 借款을 認可해서 國民의 消費性面을 刺戟시켜 全體의 貯蓄率을 低下시키고 電氣, 鐵道, 道路등 社會間接資本 部門에 대한 投資가 未及했을 뿐만 아니라 近代工業의 基幹이 되는 機械工業建設은 等閑視했기 때문에 各種施設機資材를 거의 全部 繼續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그리고 需要豫測을 그릇되게 잡아 各 工場이 國際競爭單位를 갖추지 못하여 過少, 또는 過大規模로 왜곡 조작되어 同種의 規模企業이 亂立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工場을 國際單位規模로 建設하지 아니하여 製品原價가 높아 國內消費者 負擔이 크고 輸出의 活路를 찾지 못하고 있다. 特히, 合成纖維, 세멘트 및 鐵鋼部門에서 分占의 弊害가 심각하여 工場의 建設規模가 國際單位보다 월등히 작으면서 總施設規模는 過剩狀態라는 矛盾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外資導入은 特惠措置를 助長시켰다. 外資導入 事業選定에 있어서 어느 特定企業體, 또는 特定人을 選定하여 衡平原則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價格체크가 未備하여 表面去來에서 導入「플란드」價格이 비싸거나 혹은 中古品을 導入하고 그 裏面去來에서 그 差額을 企業運營에 利用할 可能性이 많고 借款導入의 利子率은 國內利子率보다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또 큰

惠澤을 주고 있다. 外資導入事業은 獨占企業이므로 價格이 비쌀 뿐만 아니라 品質이 나쁘고 게다가 「인플레이」上昇을 勘案하면 더욱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넷째, 外資導入은 原資材에 대한 海外依存度를 높이고 있다. 外資導入이 輸入代替産業에 集中하면 輸入代替産業은 完製品의 輸入이 原資材의 輸入으로 代替되는데 그치므로 原資材 輸入이 增大되고 있다. 外資導入에 의한 建設이 活潑해지면서 原資材輸入은 急激히 늘어 갔다. 즉, 1960년에 211百萬弗에 不過했던 原資材輸入은 1962년에는 291.6百萬弗로, 1965년에는 319.6百萬弗로, 1967년에는 573.8百萬弗로 各各 增大하였다. 完製品輸入代替는 國內需要가 增大해 가면서 原資材輸入이 增加하여 이것이 外換에 대하여 큰 壓力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消費材 工業이 先進國의 原資材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産業構造가 隸屬하여 不等價交換으로 인한 交易條件이 惡化되고 있다.

다섯째, 外資導入은 經濟秩序를 攪亂시키고 있다. 財政借款을 除外한 民間商業借款이나 直接投資는 收益性이 높은 産業에 集中投下하는데, 主로 製造業部門이고 그 部門에서도 經濟의 均衡的發展에 必要한 基幹工業보다 侈奢性消費財工業이나 非生産的 서비스部門에 集中되는 傾向이 있다.¹⁶

우리나라에서 直接投資는 同一産業 分野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國內企業을 萎縮시키며 새로운 産業分野에 대해서 國內企業이 投資機會를 喪失하게 된다. 이와같이 直接投資는 輸入된 近代的 企業과 土着的 前近代的 企業이 相互間에 아무런 經濟關係를 맺지않고 한 經濟社會에 併存하면서 二重社會構造를 深化시킬 우려가 많다.

以上과 같이 外資導入의 利益과 損失을 公式으로 表示하여 經濟發展에 어떻게 寄與하는가를 檢討해보자.

外資導入利益은 投資로 인한 純國內生産額(OD)의 現在價値와 같은 것이다. 純國內生産額은 ① 總生産(O)에서 輸入要素(M)와 國內資源의 機會費用(C)을 差減한 것에 ② 外部經濟, 國內投資誘發, 技術, 經營 및 人力開發效果등을 包含하는 國內經濟에 대한 外資投資의 間接效果(X)을 加算한 額數이고 外資導入損失은 ① 當初 投資로 發生하는 每年 投資利益支拂額(P) ② 再投資로 생긴 利益의 每年支拂額(PR) ③ 投資元金償還額(CR)등을 現在價値로 換算한 總計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公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text{外資導入 利益} = O + X - M - C \sum_{t=1}^{t=n} \left(\frac{OD^t + X^t}{(1+i)^t} \right)$$

$$\text{外資導入 損失} = P + PR + CR \sum_{t=1}^{t=n} \left(\frac{P^t}{(1+i)^t} \right)$$

註: i=現在價値로의 割引率 t=期間

¹⁶ Michael Kidron, Foreign Investment in India, p 300.

따라서 外資導入 利益이 그 損失을 超過하게 되면 外資導入은 經濟發展에 寄與하나 反對인 경우는 오히려 經濟發展에 障害를 준다. 利益과 損失의 決定要素는 다른要素에 대하여 獨立變數가 아니고 相互依存關係를 維持하게 된다. 于先 投資利益의 回收와 再投資利益의 送金 및 投資元本 回收등의 相關關係를 보면 萬一 投資利益이 모두 送金되는 경우에는 再投資利益의 送金は 零일 것이고 投資利益이 모두 再投資된다면 再投資利益은 極大化될 것이다. 그리고 投下資金이 모두 回收된다면 投資 및 再投資의 利益送金은 零이 될 것이다.

한편 이것을 海外支出資金의 現在價值割引率이 높으면 그 損失額은 적어질 것이다. 外資導入의 間接效果로 인한 利益은 社會間接資本을 위시한 經濟發展의 寄與效果와 二重構造 및 展示效果등에 의한 沮害效果와의 比較에 의해서 測定될 수 있다.

Ⅶ. 外資導入의 改善策

上記한 外資導入의 諸矛盾에 대한 改善策을 考察해 보자.

外資導入의 改善策으로서 첫째, 借款效果의 極大化를 들 수 있다. 借款效果의 極大化條件은 ① 外資導入額에 過不足이 없이 適正規模이어야 한다. 適正規模보다 적을 때에는 國內資本不足을 充分히 補完하지 못하며 適正規模보다 클 때에는 外資의 浪費를 招來하게 된다. ② 外資導入은 安定的이고 持續的이어야 한다. ③ 借入國이 資金使用의 裁量權을 가져야 한다. 外資導入이 先進國의 原料供給이나 市場開拓을 위해서 進出되는 경우가 많으며 短期的인 收益性이나 經濟構造의 隸屬化를 가져오는 部門에 集中하게 되니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해서도 外國人の 經營權을 規制하여야 한다. ④ 導入된 外資가 合理的으로 配分되어야 한다. 外資는 國內企業과 면밀한 聯關下에 國內 誘發投資를 刺戟할 수 있는 部門에 配分되어야 한다. ⑤ 外資導入에 關聯하여 內資需要와 인플레이抑制를 위한 合理的인 金融財政政策이 實施되어야 한다.

現在 우리나라가 高度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는 要因은 外資導入과 輸出의 急增이었다. 從來, 우리나라는 輸入代替産業에 外資導入이 集中되었는데 막상 輸入代替産業을 建設해 놓고 보니까 輸入이 代替되는 것이 아니라 原材料輸入이 漸次的으로 더 늘어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外資導入에 의하여 輸入代替産業을 建設하는 것보다 輸出先導産業을 建設하여야 한다. 輸出先導産業을 建設하면 借款의 元利金 償還力이 強化될 뿐만아니라 連鎖效果가 增大된다. 우리나라는 勞動力이 많으니 勞動力集約的 輸出産業에 外資導入을 增大시키어 國際競爭單位로 工場을 竣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外資導入에 의한 投資政策을 二元化해서 既存業體는 規模를 擴大하고 新規 投資産業은 國際競爭을 할 수 있도록 推進하여야 한다. 特히 新規 投資産業은 高度加工이나 高度의 知能이 要請되는 産業을 建設하여야 한다.

그 改善策으로서 둘째, 外資導入의 適正規模를 策定하여야 한다. 外資導入의 適正規模는 資本吸收能力과 元利金 償還能力에 의해서 推進될 수 있다. 于先, 資本의 吸收能力이라 함은 한나라經濟가 一定한 期間동안에 一定한 水準以上の 效率性を 維持하면서 投資할 수 있는 資本規模를 말하는 것이다.¹⁷ 資本의 吸收能力은 外資의 生産的 效率性에 依存하고 있다. 外資의 生産的 效率性を 決定하는 要素로서 ① 生産技術, 企業家精神, 經營能力등과 같은 補整的 生産要素의 可用性 ② 自然資源의 配分 및 社會間接資本 ③ 經濟的社會的 制度 및 慣習등을 들 수 있다. 다음, 元利金 償還能力은 短期的으로 經營收入에 의하여 決定되나 長期的으로 外資에 의한 ① 所得 ② 貯蓄 ③ 輸出등의 增加에 의해서 推定된다. IBRD 에 의하면 外資導入의 適正規模 策定은 元利金 償還額이 經常外換受入額의 10%線을 超過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特히, 償還期間의 集中的 偏重을 막아야 한다.

그 改善策으로서 셋째, 有利한 外資誘致를 圖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外資導入은 全體의 3.6%인 46,338.6千弗이 現金借款과 直接投資를 除外하고 나머지는 資本財 導入이다. 資本財導入의 경우, 다만 指定된 資本財의 約定量만을 輸入하는 것, 즉 資本財의 延拂購買이다 우리나라의 資本財導入은 借款供與企業의 資本財借款이므로 國際競爭價格이 아니고 獨占價格이니 高價이고 特히, 民間商業借款은 高率의 着手金を 支拂하고 있고 償還期間이 短期的이고 資本財의 延拂販賣이므로 金利가 높을 뿐만 아니라 技術의 適用이 國家에 따라 相異하므로 相對的 優劣이 생겨 借款條件이 심히 不利하다. 그리고 資本財란 아직도 注文生産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購入을 特定國에 委任할 때 그 製作供給이 늦어질 憂慮가 있을 뿐만 아니라 借款에 의한 建設이 빠르면 빠를수록 大概是 中古資本財가 新品처럼 引渡되기 쉽고, 借款供與國이 借款導入國과 競爭關係가 있으면 資本財와 技術輸出을 꺼리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不利한 條件의 民間商業借款보다는 國際金融機構로 부터의 借款이나 財政借款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直接投資 誘致에 積極적으로 努力하여야 한다. IBRD, IDA, IFDC 등의 國際金融機構로 부터의 借款은 低利로 長期供與되고 있다. IBRD 貸付는 10年以內的 短期로부터 25年以上의 長期貸付가 있으며 金利는 4.5%~6.5%이고 IDA 貸付는 40年以上의 長期이고 無利子에 0.75%의 手數料만이 賦課되는 등, 有利한 借款이다. 財政借款條件을 보면 美國의 경우 27.9년에 3.3%의 有利한 條件이다. 그리고 國際借款團의 構成으로 인한 多邊的인 經濟協力을 推進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現在 美國을 위시한 11個國과 IBRD, IMF, ADB, OECD 등의 國際機構가 參加한 對韓國際經濟協議機構(IECOK)의 創設을 契機로 國際借款團으로 부터의 借入을 推進하여 왔으며 最近에는 綜合製鐵工場 建設을 推進하고 있다. 先進國의 資

¹⁷ J. H. Odler. Absorptive Capacity "the Concepts and determinants" p5

本市場에서 債券을 發行함으로써 借款을 獲得하여 借入한 現金을 가지고 國際入札에 의하여 有利한 資本財를 導入할 수 있다.

그리고 外資導入에 있어서 着手金, 據置期間, 償還期間, 年利率 및 支給保證등을 勘案해서 有利한 條件의 借款을 選擇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에 借款이 集中하면 政治的 經濟的 支配를 받을 수 있으므로 一國偏重依存을 止揚하여야 한다.

다음에 外資導入에 있어서 民間商業借款은 되도록 輸入代替的 産業建設을 避하고 輸出産業建設에 集中하여야 한다. 輸入産業과 內需産業과의 區別은 時間的次元에서 決定하여야 한다. 民間商業借款導入은 元利金を 償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借款은 內需産業建設보다 外需産業建設을 選擇하여야 하니, 輸出産業 및 短期間內에 輸出産業으로 轉換할 수 있는 産業에 限定하여야 한다. 아무리 民間商業借款에 의하여 輸入代替産業이 잘 建設되어 內需가 圓滑하게 되었다고 해도 輸出産業이 하나도 建設되지 않았다면 元利金償還이 不可能하게 된다.

그 改善策으로서 넷째, 直接 및 合作投資에 대한 是正策이다. 그 是正策으로서 ① 投資環境改善策 ② 經濟開發效果의 極大化策 ③ 그 副作用을 抑制하는 政策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① 投資環境改善策으로서 ㉑ 社會的 安定과 投資保障을 들 수 있다. 政治, 經濟的 安定과 財產權 및 投資保障의 確保는 外國人 投資誘致의 基本要件이다. ㉒ 經濟的 下部構造의 擴充을 들 수 있다. 後進國에 있어서 社會間接資本을 위시한 經濟的 下部構造의 脆弱性은 外國人 投資를 阻害하는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擴充하여야 한다. ㉓ 産業保護措置를 들 수 있다. 한 産業에 대하여 保護措置를 취하면 同産業에 대한 利益이 擴大되어 外國資本 誘致가 增加된다. ㉔ 租稅上의 特典을 들 수 있다.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은 投資誘致政策에 있어서 가장 積極的인 方法이다. ㉕ 金融上의 便宜 및 資本市場의 育成이다. 後進國에 있어서 外國人 投資家가 活用할 수 있는 資本市場의 缺如 및 金融機關의 未發達은 外國人 投資를 阻害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積極的으로 育成하여야 한다. ㉖ 投資誘致常設機構을 設置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諸般 投資與件과 經濟全般에 걸친 正確한 情報를 PR 하는 한편, 投資國政府, 또 企業家團體와 個別的으로 交渉하므로써 外韓人 投資誘致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 經濟開發效果의 極大化政策으로서 ㉗ 外國人投資의 優先順位 策定이다. 이 策定은 經濟開發計劃의 테두리안에서 그나라 經濟의 特殊性을 勘案하여야 할 것이나 外韓人 投資의 特殊性에 비추어 投資順位는 ㉘ 外換事情을 好轉시킬 輸出産業이나 輸入代替産業이어야 한다. ㉙ 人力開發과 技術 및 經營普及을 促進할 수 있는 分野이어야 한다. 技術者 및 經營者의 不足이 經濟發展의 阻害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外國人 投資企業에서 生産技術 및 經營能力을 訓練하여야 한다. ㉚ 産業의 系列化(vertical integration)이다.¹⁸ 外國人 投資가 産業系列化를

¹⁸ Roy Blough,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and adaptation, PP. 234-5

促進하여야 한다. 先進國은 大體로 原料, 生産過程에서 마케팅過程에 이르는 모든 垂直的 生産過程을 망라하는 産業體系를 갖추고 있는데, 後進國에서는 自己完了의 産業體系를 完備하지 못하고 있어 産業構造上的 隘路, 生産要素不足, 또는 市場狹少등 모든 難關에 부딪치게 되므로 이것을 促進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外資導入에 의한 産業建設은 되도록 土着化하기 쉽고 技術, 原料 및 市場등 여러가지 面에서 採算性이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되도록 外資導入에 의하여 建設되는 産業이 水平的 및 垂直的으로 密接한 聯關을 맺어서 生産의 自己完了 體制를 갖도록 配分하여야 한다.

③ 그 副作用을 抑制하기 위한 措置를 講究하는 施策으로서 ㉑ 部門制 投資制限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出益性이 강한 産業이나 重要な 資源을 당진시킬 憂慮性이 있는 産業에 대한 外國人 投資는 規制되어야 한다. ㉒ 租稅政策에 있어서 外國人投資 誘致策으로서 租稅減免措置를 취할 수 있지만, 租稅特惠期間이 經過된 後에는 外國人 投資의 過剩利益을 租稅로 吸收하므로써 그 副作用을 減少시켜야 한다. ㉓ 價格統制이다. 國內競爭企業이 없으면 高價政策을 취하게 되는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直接·間接으로 價格統制를 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公正去來法 내지 獨占禁止法과 같은 制度的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그 改善策으로서 다섯째, 外資導入制度의 是正策이다. 그 是正策으로서 民間商業借款에 대한 政府의 支給保證制度를 制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積極的인 外資誘致對象은 民間商業借款보다 財政借款이나 國際金融機構로 부터의 借入, 外債發行, 直接投資등 이어야 한다. 政府가 民間商業借款에 대하여 支給保證을 할 때 內資所要額을 嚴格히 確保한 企業에 限해서 許可해 주어야만 不實企業體가 發生하지 않는다. 民間商業借款에 대한 內資所要額을 過少策定하여 所定承認要件에 의해서 事前承認을 얻은 後에 實際事業推進過程에서 內資所要額이 不足하여 融資나 現金借款을 要求하는 副作用이 發生하니 이러한 것을 是正하도록 外資導入制度를 改正하여야 한다. 民間商業借款導入에 있어서 內資마란스가 맞아야 한다. 建設過程에 있어서 民間商業借款導入에 의한 企業建設이 가장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建設用內資가 動員되어야 한다. 그리고 一旦, 企業建設이 끝난 後 그 正常的인 稼動을 保障하는 內資가 또 動員되어야 한다. 이것이 不可能한 경우 外資企業은 運營資金不足으로 倒産이 不可避하여 이것을 避하기 위하여 現金借款, 金融機關의 融資에 의하여 內資動員을 꾀할 때, 貯蓄性向沮害, 인플레이誘發등의 弊害가 생기게 된다.

다음에 借款獲得後 末久에 다칠 元利金償還을 위한 元貨積立이 제때에 안되면 支給保證이 不必要했던 企業의 경우는 對外信用이 떨어지고 그 企業의 運營이 不可能해지고 支給保證이 必要했던 企業은 代拂을 發生시켜 國民經濟를 攪亂시킨다. 그러므로 外資企業의 內資動員을 極大化하는 方策은 다음과 같다. 建設過程에 있어서 內資所要比는 企業마다 다르나 政府 또

는 市中銀行의 支給保證에 의하여 얻은 外資에 관해서는 建設을 위한 所要內資의 一定比率을 産業銀行에 豫置시키고 企業建設이 進行됨에 따라 豫受資金을 放出하여야 한다. 償還과 關聯되는 內資動員은 支給保證을 한 경우 保證額의 100%에 該當되는 動産과 不動産을 擔保하여야 한다. 그리고 換率의 變動에 따라 擔保價値도 比例的으로 變動시켜야 한다.

民間商業借款許可時 施設財 船積, 施設財價格, 生産單位の 經濟性 및 技術등 諸要素를 嚴密히 체크하여 經營不振이 되지 않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直接投資는 鑛山業, 製鐵工業, 機械工業, 石油化學工業등 基幹工業에서는 되도록 避하여야 한다. 前後方連鎖效果가 큰 戰略産業에 投資 및 合作投資를 禁止하여 經濟的隸屬化와 買辦化를 避하여야 한다. 鐵道, 電力, 道路등 社會間接資本部門은 收益率이 매우 낮기때문에 이러한 部門은 財政借款에 의하여 建設하여야 한다.

그 改善策으로서 여섯째, 事後管理問題를 들 수 있다. 事後管理等으로서 ① 不合理한 經營에 의한 損失을 消費者에게 轉換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經營不實企業體는 그 損失을 製品價格을 引上하여 消費者에게 轉換하므로써 不當利潤을 追求하고 있는데, 이것을 國際的으로 標準價格과 對照해서 合理的인 價格水準을 策定하여 그 以上으로 價格을 引上할 때는 그 價格을 統制하거나 同商品의 輸入을 開放하여 그 價格을 引下하거나 하여 團束하여야 한다.

그 改善等으로서 일곱째, 國內企業과의 調和問題가 있다. 外資導入法에는 ① 國際收支改善에 顯著히 寄與하는 事業 ② 重要産業, 또는 公益産業의 發達에 寄與하는 事業, ③ 經濟開發計劃에 策定되어 있는 事業등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積極的으로 國內企業의 倒産을 招來할 産業이거나 國內企業의 對外競爭力이 脆弱한 部門은 外國人의 投資를 規制하여야 한다. 外國企業은 資本, 技術, 經營, 市場등의 優位性으로 國內企業은 不利한 位置에 처해 있다.

Ⅶ. 結 論

첫째, 外資導入政策의 變遷過程을 보면 1960年 1月 1日에 制定한 外資導入促進法은 外國投資家의 投資를 保障했으며 諸般租稅特典을 주는 形式的인 外資導入法의 態勢를 갖추었고 同法을 1961年 8月 7日에 改正하여 投資對象事業範圍와 通用國家範圍을 擴大하였다. 1962年 6月 「非計劃事業을 위한 外資導入促進方案」을 公布하여 第1次 5個年計劃에 包含되어있지 않은 事業에도 外資導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63年 4月에 制定된 「長期決濟方式에 의한 資本財導入에 관한 特別措置」에서 借款導入의 길은 事實上 開放하였다. 그리고 1967年 12月 1日로 實施하게 된 「外資導入 合理化를 위한 綜合施策」에 의하여 借款導入에 여러가지 制限을 加하였다. 끝으로 1968年에 實施한 主要外資導入施策은 部門別 投資優先順位의 調節

과 經濟外交의 強化를 圖謀하였다.

大體로 外資導入의 初期段階에서는 財政借款의 導入에 置重했으나 그 다음段階에서는 民間 商業借款의 導入을 積極推進해 왔으나 最近에 와서는 直接投資誘致를 積極 獎勵하는 등 外資 導入에 있어서 初期에는 量的導入에 置重해 왔으나 後期에는 質的導入에 置重하는 變遷過程을 밟았다.

둘째, 外資導入의 現況을 보면 無償援助가 約 40億弗로서 6.25動亂과 戰後인 1952년부터 1958년까지 동안에 가장 많이 받았다. 이 無償援助는 戰災民救護와 經濟復興에 集中的으로 使用하였다. 借款은 1959년부터 始作하여 第1次 5個年計劃과 第2次 5個年 計劃期間에 集中되어 있는데, 1969年 1月末까지 約14億弗이고 그中 財政借款은 約 5億弗, 民間商業借款은 約 9億弗인데 前者는 基幹産業과 社會間接資本部門에 集中的으로 投資하고 있고, 後者는 收益性이 많은 製造業에 集中投資를 하였다. 直接投資는 9千萬弗로서 製造業인 肥料, 纖維, 電子製品部門에 集中投資하고 있다.

技術導入은 1969年 1月末 現在로 104件인데 日本이 64件으로서 가장 많고 部門別로는 電子 및 電氣機器가 26件으로서 가장 많다.

셋째, 經濟開發計劃과 外資投資基準에 關해서는 國際收支改善, 商業的收益性이 많고 雇傭과 附加價値가 많은 工業部門에 投資하여야 한다.

넷째, 外資導入이 經濟에 미친 影響을 보면 利得을 준것은 ① 經濟成長의 促進 ② 産業構造의 改善 ③ 國際收支의 改善 ④ 連鎖效果의 增大 ⑤ 雇傭量의 增大등이고, 損失을 준것은 ① 外資導入의 亂立 ② 事業選定 및 事業規模의 無計劃性 ③ 特惠措置 ④ 原資財輸入依存度의 增大 ⑤ 經濟秩序의 攪亂등이다.

끝으로 外資導入의 改善策으로서 ① 借款效果의 極大化策 ② 外資導入의 適正規模의 策定 ③ 有利한 外資誘致策 ④ 直接 및 合作投資의 獎勵策 ⑤ 外資導入制度의 改正策 ⑥ 事後管理策을 들 수 있다.